행원

HAENGWON 2017

HANYANG
WOMEN'S UNIVERSITY

VOL.42



행원

HAENGWON 2017

HANYANG
WOMEN'S UNIVERSITY

VOL.42

CONTENTS

발행 축하글

04
총장 이보숙

05
지도교수 통상중국어과 권수전

06
편집장 문예창작과 김은진

특집 기사

29
한양여대 페스티벌 하이유

30
잡카페

33
취·창업지원센터

37
창의인성센터

기획 탐방

10
오죽헌

13
허균 허난설헌 생가터

16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

21
강릉 '하슬라아트월드'

23
강릉 맛집 탐방

2017 이슈

42
1인 가구의 증가

48
대한민국 여성 최초 외교부 장관 '강경화'

50
소소한 삼삼함이 좋다

53
매년 발생하는 달걀 문제, 원인은 무엇인가?

문화

56
HOLIDAY LAND FESTIVAL

58
나폴레옹

63
#셀피selfie_나를 찍는 사람들

66
슈퍼배드3 : 프리즌 브레이커

68
픽사 PIXAR, 30주년간의 여정

70
Memory : 뮤지컬 캣츠

우리들의 이야기

75
다양한 봉사활동의 종류

79
알쓸신통-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통신사 할인

81
해외여행 꿀팁 & 주의사항

인터뷰

86
문예창작과 정용준 교수

89
일본어통번역과 이병만 교수

92
통상중국어과 성세실리아 교수

자유 기고

96
영원히 재생하는 나라, 러시아

104
인성人性이 가득한 밥상

110
스무 살의 나에게

행원문화상

114
사진 부문 심사평과 수상작

120
시 부문 심사평과 수상작

122
에세이 부문 심사평과 수상작

편집 후기

134
2017년 교지편집위원회 소감

축하의 글



총장 **이보숙**

‘행원’ 42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우리 한양여자대학교의 1년이 담긴 ‘행원’ 발간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내놓은 ‘행원’ 교지 편집위원회 학생들의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도하여 주신 권수전 교수님과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원’은 교지 편집위원회에서 1년간 교지에 실릴 내용을 기획하고 취재하고
정리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여 인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하여 발행됩니다.
한양여자대학교 학생들의 관심에서 약간 멀어진 ‘행원’을 학생들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
편집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7학년도에는 많은 교직원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 한양여자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LINC+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학생들이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여성 인재가 되도록 전공 및 창의 인성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었고, 많은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NCS 기반의 업그레이드된 실습실들과
창의 기반 취창업 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행원’에서 취재하고 다루어야 할 콘텐츠가 풍부해졌습니다.
이처럼 함께 노력하여 대학이 성장하고, 학생이 성장하고,
더불어 ‘행원’도 성장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의 글



지도교수 **권수전**

인생이라는 마라톤의 출발점에서...

마라톤은 42.195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려 결승점으로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것은 마라톤이라는 것이 정해진 구간을 쉼 없이 달리는 과정에서 처음엔 의욕과 힘으로 가득 차 달리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숨도 쉬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고비를 만나게 되고, 그 고비를 넘기고 고동치던 심장에 평온이 찾아오면 그때부턴 남은 거리를 스스로 완급조절을 하며 결승점을 향해 혼자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기에 그렇게 비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출발점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다가 점차 선두그룹을 중심으로 각각의 그룹이 만들어지고, 마라토너가 자신의 페이스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가 도움을 주며 함께 뛰다가 페이스메이커까지 빠지고 나면 결국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것은 오직 자신과의 싸움으로 끝나게 되기에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 마라톤 여정 중 어느 구간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도달해야하는 결승점이 어디인지, 어느 지점들을 통과해야 하는지, 어디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고, 누가 자신의 조력자인지, 결승점에선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고 계시나요?

20대의 첫걸음을 우리 한양여자대학교 교정에서 교수님들과 선배들과 동기들과 함께 힘차게 내디디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로 이곳, 한양여자대학교가 여러분 인생의 마라톤을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자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캔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 교지 ‘행원’은 그런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과 이상을 담아 항상 여러분 곁을 지키고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지면을 가득 채워주신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의 축하글과 자유기고, 교지편집부원들의 특별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작품과 사진으로 어우러진 ‘행원’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원’ 발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이보숙 총장님과 김의정 학생복지처장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행원’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하나에서 열까지 챙겨준 김은진 편집부장을 비롯한 교지편집부원들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지칠 때, 우리 교지 ‘행원’이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이자 타는 목을 적셔줄 시원한 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글



편집장 **김은진**

교지를 발간하는 일 년이란 시간은 길지만 아쉬움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얼떨결에 편집장이 되어 작년과 달리 모든 과정을 새롭게 느껴가며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행원 4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행원'을 통해, 시간은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느껴졌습니다.
편집장이란 무거운 역할을 제가 잘 해왔는지 되돌아보며, 그동안 다져진 경험이
저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되어줄 것이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지편집부는 새로운 기사를 만들어 교내에서 편집하고 발행하는 책입니다.
기사라는 것은 팩트가 있어야 하고 그것에 책임을 지고 독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피, 땀을 흘려가며 만들어 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교지를 통해 학교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며
학생들에게 큰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지를 제작하면서 다사다난했었지만, 어떤 상황이든 잘 이겨내고 따라와 준
편집위원들이 없었더라면 발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항상 미숙한 저를 잘 이끌어주신 권수전 교수님과 셀 수 없는 질문에도
세세히 알려주신 전 편집장 황예지 선배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기획 탐방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 곳, 강릉

10
오죽헌

13
허균 허난설헌 생가터

16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

21
강릉 '하슬라아트월드'

23
강릉 맛집 탐방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여행지,

강릉

글·교지 편집부

교지 편집부는 이번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곳, '강릉'을 다녀왔어요. 강릉은 고속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해 2시간 정도면 도착해요. 강릉은 관광지와 먹거리가 모여 있어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조목조목한 매력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답니다. 낮에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관광지를 방문하고 일몰 시간에 맞춰 안목해변으로 이동하여 카페거리와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이어서 역사 공부와 재미, 그리고 힐링이 더해진 곳이죠.

예부터 강릉은 살아 있는 문화유산과 함께 훌륭한 위인을 배출하던 곳이라고 해요. 그로 인해 문향·예향의 도시라는 말이 붙여진 이곳. 교지 편집부가 강릉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죽헌

글·조미선(패션디자인과 15학번)

검정을 자연에서 찾으려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새파란 하늘과 빛바랜 모래알이 뒤섞인 땅 사이에 형형색색의 조화로운 자연이 유기적으로 숨 쉬고 있지만, 그 자연물들을 다 합친 새까만 검정색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위와 돌멩이조차 회색에 가까웠어요. 제가 지금껏 살면서 자연 속에서 찾은 것 중에 이토록 까맣고 영롱하게 빛나는 검정은 이곳, 오죽헌에서의 경험이 처음이에요. 오죽헌은 율곡 이이와 신사임당이 태어난 곳으로 이름처럼 까맣고 길게 뻗은 오죽이 뜰 안, 곳곳에 즐비했어요. 마치 집주인의 올곧은 신념과 기개를 대신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갔던 날은 거의 한여름 수준에 뜨거운 날씨였는데도 자연스러운 색감과 조경들이 잘 보였어요.

사실 저는 서울에서도 가끔 혼자서 창덕궁에 가서 쉬고 올 정도로 고궁이나 한국 전통건축물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옛날 전통 건축을 볼 때 그 시대 사람처럼 걷고 생각하면 제가 그 시절 조상들의 생각과 창의를 갖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이죠. 그래서 아주 느린 걸음으로 걷다 보니 이미 일행과는 거리가 꽤 생겨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강릉에 오죽헌을 보러 올 기회가 거의 없을뿐더러 지금 22살 나이에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할 것을 알기에, 지금 제 눈 앞에 펼쳐진 오죽헌의 자연경관과 이곳을 가득 메운 격몽(擊蒙)의 기(氣)들을 빠짐없이 즐기려고 노력했어요.

오죽헌에는 초충도의 실제 배경이 되는 화단이 있어요. 5000원 지폐 뒷면에 그려진 초충도의 수박꽃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쁜 꽃과 풀이 있었고, 그녀가 율곡 이이 어머니이기 이전에 화가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줬어요. 요즘 현대미술처럼 추상적이고 해석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림들을 보다가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묘사한 초충도를 보니까 눈이 너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초충도는 워낙 명작이라 저도 어렸을 때 모사를 한 적이 있어요. 따라 그려본 사람은 아마 다들 신사임당이 얼마나 위대한 화가인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옛날 가부장적인 시대에 여성이 화가로서 위상을 떨친다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그녀의 가정이 좋은 뒷받침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 역시 타고난 천재임은 분명해요. 그래서 아들 율곡 이이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율곡 이이가 태어난 몽룡실을 따라가면 곳곳에 격몽요결에서 발췌한 글들을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해요.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







아야 한다.” 이 구절을 마주한 순간 저는 어제 제가 한 짓거리의 참회 순간을 잠시 가졌어요. 여행 준비로 다리가 아프다는 엄마를 위해 주물러 드리는 그 5분이 아까웠어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면 까맣게 가족의 생각은 잊고 저 혼자 즐긴 적도 많아요. 사실 예시들은 약과에요. 제가 예를 보인 행동보다 예를 지키지 못한 순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이 늘 이런 글을 볼 때와 같이 마음이 무겁죠. 이 외에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학문하지 않으면 마음이 막히고 소견이 어두워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사람을 상대하는 데는 마땅히 화평하고 공경하기를 힘써야 하며 반드시 학문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서 사귀어야 한다.” 등 격몽요결에는 학문의 중요성과 세상살이에 대한 처세술,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어요. 시대가 변해도 불변하는 진리들의 기록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여유가 없어져 그 마음가짐을 잃게 될 때도 정신을 가다듬고 천천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매번 건축적인 미학이 뚜렷한 서울의 고궁들을 볼 때와 달리 이번 강릉에 오죽헌에서는 정신적인 수양을 하게 된 것 같아 색다르게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흔히들 오죽헌을 볼 때 소박하지만 아름답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본 오죽헌은 절대 소박하지 않았어요. 오죽헌을 가득 메운 기세는 저로 하여금 가족에 대한 사랑과 지금껏 살아가는 데 있어, 예를 기준으로 두지 못함에 참회들을 느끼게 해주었고 제가 존재하는 가장 큰 깨달음을 알려주었어요.

그 자체로 우주적인 기가 있으며, 보존되어 감사한 곳, 그리고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그 시대에 살았던 조상들의 철학들. 제가 강릉 사람이라면 창의를 얻고 싶거나 살아가는 데 여유가 없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자주 찾을 텐데요.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오죽헌
전시 문의 033-660-3301
매표시간
하절기 3월~10월 : 8:00~17:30
동절기 11월~2월 : 9:00~17:00
관람시간
하절기 3월~10월 : 8:00~18:30
동절기 11월~2월 : 9:00~18:00
관람료
어른 3,000원 / 청소년, 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허균 허난설헌 생가터

글·김은진(문예창작과 16학번)

허균 허난설헌 생가터는 우리나라의 문학의 거장들이 탄생한 곳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한 <홍길동전>을 탄생시킨 허균과 여성이라서 문인활동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후에 중국에서부터 알려진 허난설헌이 태어난 이곳. 강릉시 초당동에 위치한 허균 허난설헌의 생가터를 방문했어요. 강릉의 대표 관광지로서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장소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라고 해요. 옛 문헌에 의하면 강릉 고을에 들어서면 글을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글을 읽는 소리를 들으러 허균 허난설헌의 생가터에 발을 들여봐요.

입구로 들어가면 전시실이 보여요. 전시실에는 허균과 허난설헌의 소개가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허씨 집안의 가계도부터 허씨 일가의 삶, 아버지 허엽을 비롯하여 허성, 허봉, 허균, 허난설헌 4남매를 일컬어 부른 ‘허씨 오문장’의 작품들이 전시되었어요. 또 허균이 기록한 집안 이야기와 조선시대 사대부 문화 일부가 정리되어 있죠. 전시가 끝나는 부분에 고서적들과 홍길동전 만화책, 음반도 함께 볼 수 있어요. 기념관을 나와 작은 산책길을 따라가 보면 멀리 허난설헌의 동상을 볼 수 있어요. 허난설헌의 동상은 신사임당의 동상과 달리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그 앞에는 ‘아들딸 여의고서’의 시구가 적힌 석판이 놓여 있어요. 동상 옆에는 ‘허씨 오문장’의 시비가 나란히 늘어서 있어요.

죽지사
–난설헌 허초희–
나의 집은 강릉 땅 돌 쌓인 갯가로
문 앞의 강물에 비단 옷을 빨았어요.
아침이면 한가롭게 목란배 매어 놓고
짝지어 나는 원앙새만 부럽게 보았어요.
(장정룡 역)

허난설헌은 1563년에 강릉에서, 초당 허엽의 3남 3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난설헌’은 그녀의 호인데요. 난초의 청순함과 눈의 깨끗한 이미지를 의미하고 ‘눈 속에 난초가 있는 집’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해요. 그녀의 실제 이름은 ‘초희’에요. 그 당시, 대부분의 여성에게 이름이 없던 걸 생각하게 되지요? 허난설헌에게 ‘초희’라는 어엿한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그녀의 가족이 다른 사대부 가문보다 여성에게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개방적인 가문에서 자란 허난설헌은 그 당시 대부분의 여성에게 주어지지 못했던 교육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또한





허난설헌의 오빠인 허봉이 친구 손곡 이달에게 시를 배우도록 해줬다고 해요.

8세 때에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을 쓰면서 그녀의 천재성을 세상에 드러냈어요. 그녀는 15세에 김성립이라는 양반 자제와 결혼하게 되지만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 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게 돼요. 동시에 아이 두 명을 돌림병으로 잃고 또 다른 한 명은 유산하는 비극도 겪게 되었죠. 조선 땅에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남편 김성립과 결혼한 것. 세 가지 한이라고 말하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그녀는 자기의 모든 작품을 불태우라는 유언을 남기고 27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하지만 동생 허균은 그녀의 작품일부를 보관했다가 명나라 사신 주지번에게 주어 중국에서 난설헌집을 간행했죠. 일본에서도 간행되고 애송되어 당대 세계적인 여류시인으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고 해요. 그녀가 죽기 전에 불태워버린 수많은 작품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웠어요.

정포호 정자.
--교산 허균--
연기 안개 푸른데 호수빛 넘실거려
가을 꽃 밟고서 죽방으로 들어가네
머리 희고 활 던 만에 다시 와보니
그림배에 홍장 싣고 갈 뜻이 없구나.
(엄창섭 역)

허균은 1569년에 태어났으며, 호는 교산으로 사천 진해수욕장에 있는 산 이름으로 호를 따왔다고 해요. '교'가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그의 삶 또한 혁명가의 꿈을 펼치지 못한 채 떠난 것이 아닐까요. 허균은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을 지었고, 다수의 저서로 명성을 떨쳤어요. 강릉의 명문가 자제로 태어난 그 또한 누이나 형제들과 같이 천재성을 발휘하며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죠.

문장가, 외교관으로서의 능력 또한 출중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는 파격적인 근대 사고로 시대의 이단아이자 반항아이기도 했다고 해요. 인간 평등사상을 지니고 있던 그는 천대받던 서얼 출신이나 예술가와 교류하며 적서차별 등 사회모순을 비판하는 글을 쓰고, 불교와 양명학 서적을 탐독하는 등 당시 정권에 반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적을 많이 만들었어요. 결국, 그는 반역죄로 몰려 50세에 처형을 당하여 생을 마감했죠.

산책길을 계속 지나가 보면 생가를 구경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게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한 생가터였어요. 사랑채 안쪽에 허균의 영정과 안채에는 허난설헌의 영정이 모셔져 있어요. 시대를 앞서 태어난 비운의 천재들로부터 탄생한 작품들로 인해 현재의 문학과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가 된 것이 아닐까요. 시대를 타고나지 못한 그들의 생이 시작된 곳이자, 꿈이 자라던 곳인 이곳에서 그들이 꿈을 키워왔던 것처럼 그동안 내면에 감췄던 각자의 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이 어떨까요.



난설헌로 193번길 1-29 허난설헌 생가터
전시관 문의 033-4798-4798
관람시간 09: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무료관람

초희전통차 체험관
예약 및 문의 033-640-4466
관람시간 10:00-17:00
체험비 1인 천원(현금준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

글·**이유빈(문예창작과 16학번)**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은 환경올림픽을 내세워 중고 컨테이너를 재활용하여 만든 곳이에요.

엠블럼과 같은 눈을 형상화한 구조로 중앙홀을 중심으로 올림픽 오륜기를 연상시키는 5가지의 색상, 5가지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진행되는 경기에 대해 선수모형과 설명으로 자세히 이해할 수 있으며, 다양한 포토존과 VR체험·4D체험으로 자신이 직접 선수의 입장에서 올림픽을 보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엽서에 응원 문구를 남기거나 여태 동안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들의 기념품을 살펴보면서 좀 더 가까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느낄 수 있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기간 2018.02.09 ~ 02.25(17일간)

개최장소 평창/강릉/정선

비전 아시아라는 잠재력이 큰 새로운 무대에서 세계의 젊은 세대들이 함께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평창과 대한민국에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기는 것

핵심목표 문화올림픽·환경올림픽·평화올림픽·경제올림픽·ICT올림픽

지향점
-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 통·번역 기술을 적용해 언어장벽 없는 올림픽을 실현
-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및 관련 융·복합 산업,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



슬로건 Passion. Connected(하나된 열정) 모두가 하나된 열정으로 동계 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연결한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으며, 동계 스포츠의 지속적인 확산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Passion'은 열정, 애착, 아주 좋아하는 것 등을 뜻하는 말이에요. 평창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세계적인 축제의 장으로서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완성해 가는 곳. 'Connected'는 연결하다, 결합하다, 이어지다, 맥이 통하다 등의 다양한 뜻. 평창은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문화 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새로운 시작과 세계의 조화,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PyeongChang 2018

엠블럼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평창. 그곳의 눈(설상)과 얼음(빙상)에서 선수들과 지구촌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열린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평'의 초성 'ㅍ'과 하늘, 땅 그리고 사람들의 어울림을 표현했어요. '창'의 초성 'ㅊ'과 눈, 얼음 그리고 동계 스포츠 선수를 형상화했어요.

경기 종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는 15종목 102개 세부종목이 열리면서,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금메달 수가 100개가 넘는 대회에요. 특히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부터 스노보드 빅에어(남·여), 매스스타트(남·여), 컬링 믹스더블, 알파인 스키 혼성 단체전 등 6개 세부종목이 새로 추가되어 역대 대회에서 가장 많은 여성·혼성 종목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설상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프리스타일 스키, 노르딕 복합, 스키점프, 스노보드 (7개 종목)

빙상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컬링 (5개 종목)

슬라이딩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3개 종목)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하면 또 다른 작은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는 패럴림픽으로 척수 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가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불러요. 이는 하반신 마비라는 패러플리젝(paraplegic)과 올림픽(Olympic)을 합쳐 놓은 뜻으로 패럴림픽이라고 불렸으나 이후 종목과 선수들의 폭이 넓어지면서 동등함을 뜻하는 패럴렐(parallel)과 올림픽(Olympic)이 합쳐져 패럴림픽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아마추어 정신과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고자하는 올림픽 정신을 뛰어넘어 인간 평등을 확인하고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축제인 패럴림픽은 올림픽의 제2막을 뜻하며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인생의 제2막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개최기간

2018.03.09. ~ 03.18 (10일간)

경기 종목

설상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노보드

빙상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올림픽하면 모두 떠오르는 정신들이 있어요. 이번 평창에서 열릴 동계올림픽에서도 각국 선수들과 심판 그리고 감독들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도 이런 올림픽 정신을 이어받아 정정당당하고 아름다운 경기를 펼치는 올림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릉 '하슬라아트월드'

글·조아현(니트패션디자인과 17학번)

1박 2일 동안 강릉을 여행하면서 가장 볼거리 많고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오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하슬라아트월드를 꼽고 싶어요. 저는 '하슬라'라는 말이 외국어인 줄 알았는데 고구려 때부터 부르던 강릉의 옛 이름이라고 해요. 하슬라아트월드는 복합문화예술 공원으로 볼거리가 풍부하고 tvN 프로그램인 <알쓸신잡>,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에서도 소개되어 요즘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장소로 급부상했어요. 주차장 벽면부터 화려한 색상의 건물과 곳곳에 조각품들로 시선을 끌어 기대감을 증폭시켰고 실내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예술 작품들이 많아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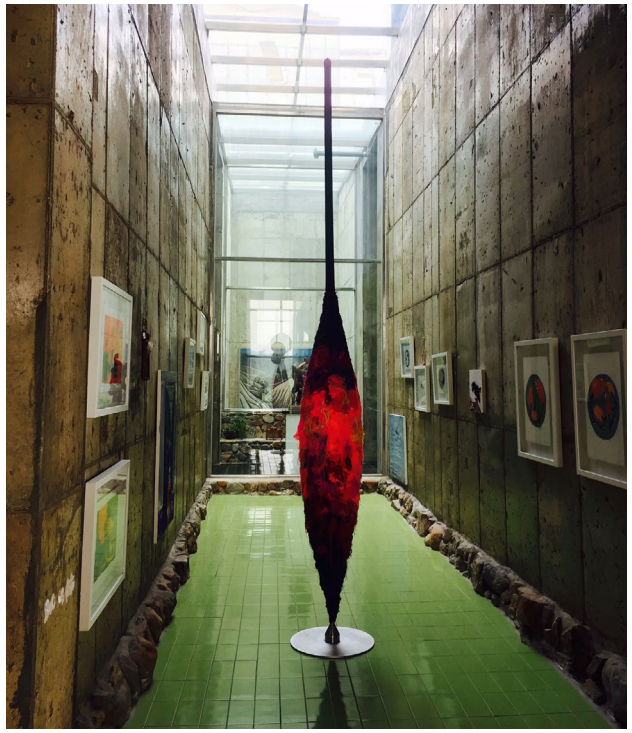
실내미술관 공간과 야외조각공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규모가 커서 볼거리가 다양해요. 미술관&조각공원 패키지로 입장권을 구매할 경우 성인 1인당 10,000원이고 공원만 이용한다면 6,000원, 미술관은 7,000원이에요. 패키지로 구매해서 처음에는 비싸다고 느꼈지만, 작품들을 하나씩 보면 볼수록 비싸다는 말보다는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좋은 전시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볼거리도 많고 생각보다 넓어서 넉넉하게 한 시간은 넘게 둘러봐야 실내와 야외공원까지 구석구석 모든 작품을 볼 수가 있어요. 실내 미술관은 아기자기하고 눈길을 끄는 작품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고 전시회를 보러 많이 다녔지만 이런 종류의 전시는 처음이라 색다르고 신기했어요. 천장, 벽, 바닥, 조그마한 공간까지 활용한 작품들이 많았고 화장실 또한 작품이라고 느껴질 만큼 독특하다고 느꼈어요.

특히 피노키오 미술관과 마리오네트 작품들은 어릴 적 만화와 책으로만 접했던 피노키오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되고 동심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피노키오는 유럽의 전통적인 마리오네트 인형이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캐릭터예요. 피노키오 박물관이 가장 가보고 싶었고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봐도 신기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피노키오 미술관 입구로 들어가는 곳은 고래 뱃속을 모티브로 한 터널처럼 되어 있어서 색다름을 느꼈어요. 키네틱적인 요소와 스토리가 담겨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미술관을 볼 수가 있었어요. 중간중간마다 센서가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인기척이 느껴지면 작품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들도 있어 색다르게 느껴졌어요. 다양한 체험 학습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덕분에 작품과 전시 공간 자체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시관 안에 레스토랑이 있어 바다를 보면서

스테이크 등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가 있어요.

실내 미술관을 모두 둘러보고 나와 만난 야외 조각공원은 산책로로 되어있고 오르막길도 있어 힘들었지만, 곳곳에 다양한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걷는 재미가 있었어요. 힘든 것을 잊어버릴 만큼 신기하게 설치한 작품들이 많고 바다를 볼 수 있어 산책하는 느낌으로 둘러봤어요. '바다를 보면서 이런 곳에 작품들이 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이한 곳까지 작품들이 있고 가까이 가서 봐야 보일 정도의 조그마한 작품 등 다양한 작품들이 있어요. 중간중간 심심하지 않게 신기한 작품들이 많아서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보는 것도 추천해요. 강릉에 가면 하슬라아트월드는 꼭 한번 가봐야 하는 장소이고 10,000원이라는 전시비가 아깝지 않은 전시회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강원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1441
관람문의 033-644-9411
관람시간
9:00~18:00(매일)
관람료
공원+미술관 10,000원 / 공원 입장권 6,000원 / 미술관 입장권 7,000원

강릉 맛집 탐방

글·한민주(컴퓨터정보과 17학번)



강릉 중앙시장

강릉은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을거리도 많았는데요, 그중 저희가 소개할 곳은 '강릉 중앙시장'이에요. 강릉의 맛집을 물으면 반은 강릉 중앙시장 주변에 있을 만큼 강릉 중앙시장은 이름처럼 강릉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강릉시 금성로에 자리한 강릉 중앙시장은 강릉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상설 시장으로 자리를 잡아 영동 지방 어류와 농작물의 집산지로 통하며 중앙시장이라고 등록되었어요.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현대식 건물이지만 강릉 사람들은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한 주변 상가 일대를 모두 중앙시장이라고 일컫는다고 해요.

현재의 중앙시장 건물은 1978년에 지어지면서 '중앙시장 번영회'로 등록됐으며 상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점포는 314개지만, 좌판까지 합치면 모두 520개 점포가 입점해 있어요. 건물을 둘러싼 주변 노점은 비가림시설을 하면서 '성남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었어요.

중앙시장 건물 맞은편, 영동선 철길 아래에도 예전부터 작은 노점들이 들어서 있었고 이 노점들 역시 비가림시설을 하면서 포장마차 촌이 형성되어 먹자골목으로 변신했어요. 먹자골목에는 '어서 오우야!'라는 강릉 사투리가 적혀 있어 이 지역의 인심을 전해주기도 해요. 먹자골목 양쪽으로는 메밀부침개,





감자옹심이, 팥죽, 감자전 등 강릉의 대표 먹을거리를 파는 점포에서부터 화장품, 농기구 등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가게가 이어져요.

중앙시장 건물 밖으로는 소머리국밥 골목과 닭강정 골목이 들어서 있고 닭강정 골목은 TV 예능 프로그램 <1박2일>에 등장해 더 유명해졌다고 해요. 이 골목에는 원래 생닭을 팔던 점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에 걸맞게 몇몇 점포는 닭튀김과 닭강정 가게로 변신했고 냉동닭이 아닌 생닭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닭튀김 맛이 훨씬 좋다고 자랑해요.

중앙시장 맞은편 상가에는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떡집이 자리해 있어요. 여느 떡집에서나 가래떡, 호박고지떡, 취떡, 찹쌀떡을 맛볼 수 있지만, 이곳 가래떡은 더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맛으로 인기를 끈다고 해요.

또한, 중앙시장에는 감자옹심이를 파는 음식점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영동 지방에서는 생감자를 갈아서 부침개를 해 먹기도 하고, 감자가루와 전분을 이용해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감자옹심이는 생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체에 걸러 물기를 적당히 빼고 동그랗게 빚어 수제비처럼 끓여내는 음식이에요. 감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쫄깃한 식감과 맛이 구수하고 깔끔해요.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먹을거리들을 맛보는 재미와 전통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들로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재미가 가득해 즐거웠지만 다른 시장들에 비해 일찍 마감하기 때문에 이른 저녁이 지나면 더 다양한 재미를 느끼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행 중 허기지면 들러 다양한 먹을거리들을 맛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폴앤메리

저희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 강릉에서 가장 유명한 수제 버거집으로 손꼽히는 '폴앤메리'에도 다녀왔는데요, 강릉에만 3개의 체인점이 있을 정도로 강릉에서 유명한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폴앤메리는 수제 버거와 커피를 같이 파는 음식점 겸 카페로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있어요. 베스트 메뉴에는 모짜렐라 버거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모짜렐라 치즈와 두툼한 패티, 신선한 채소들이 잘 어우러져 더 맛이 좋아요. 강문해변 앞에 위치해 바다를 보며 식사를 즐길 수도 있고 식사를 마치고 강문해변을 산책하며 바다를 느끼기에 너무 좋은 위치에 있어 강릉에 오면 꼭 한 번쯤은 들렀으면 하는 맛집이에요.





안목해변 커피거리

식사를 마치고 나면 강릉 여행코스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안목해변 커피거리에서 간단하게 커피를 즐길 수도 있어요. 안목해변 커피거리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최초로 커피 축제를 개최한 곳으로 1세대 바리스타인 커피 명장, 커피박물관, 커피농장, 커피거리, 커피공장, 바리스타 아카데미 등 다양한 커피 콘텐츠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커피 전문점 대부분이 직접 로스팅하는 로스터리 카페로 성업 중인 명실상부한 커피 도시라고 해요. 강릉 커피를 맛보기 위한 여행 상품으로 '강릉 커피 테마 투어'를 사계절 지속하는 등 대한민국 커피 문화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강릉은 1,000년 전 신라 화랑들이 차를 달여 마신 유일한 차 유적지 한송정(寒松亭)이 있는 곳으로, 예부터 차를 즐겨 마시는 고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 다도 인구가 많은데, 이는 일찍부터 커피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에요. 강릉 커피거리로 회자되는 강릉항 일대는 1980년대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으나 커피 자판기 5~6대가 생겨나면서 강릉은 물론 영동 지역 청춘 남녀의 데이트 장소로 주목받았고, 바다 동네에 자연스럽게 커피 마을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특별한 커피들도 쉽사리 맛볼 수 있을 정도로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커피 생산지에서 직접 원두를 수입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고 강릉의 바다, 산, 호수의 아름다운 풍광을 안은 예쁜 커피집들이 늘어남에 따라 강릉시에서는 관광지도를 '커피 지도'로 별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기도 해요. 해마다 10월에 강릉 커피 축제가 개최되어 10월이 커피의 달로 인식될 정도로 커피 애호가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강릉 커피가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강릉 지역 해변 마을은 횟집보다 커피 전문점이 더 많은 동네로 변모하여 커피 도시로 자리 잡았어요.

주유소 안에 카페가 들어서고, 해안 언덕에, 숲속에도 카페가 생겨나며 떡방앗간 카페, 기와집을 개조한 한옥 카페, 음악회가 열리고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카페가 생겨나는 등 카페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함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배로 많아지니 강릉에 오면 한 번쯤은 들려 카페에서 바다를 보며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획 탐방을 마치며



강릉(江陵)은 잠시 숨을 쉬고 돌아오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강과 언덕이 만나 이루어진 이 도시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푸른 산, 그리고 과거에서 미래로 도약하고 있는 문화를 모두 구경할 수 있어요. 지금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유명해졌지만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거리와 역사 속에서만 이름을 들어보았던 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도 강릉에 가면 반드시 해보아야 할 필수 코스라고 생각해요. 조금 느리게 걸어야 하지만 고개를 돌리는 곳곳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전경과 음악을 사랑하는 도시인만큼 쉽게 들을 수 있는 거리의 클래식 음악들. 강릉에는 그저 바다와 산이 아닌 문화를 가꾸려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잠깐 서울을 떠나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강릉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색다르고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해줬어요.

특집 기사

교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겨봐요!

29
한양여대 페스티벌 하이유

30
잡카페

33
취·창업지원센터

37
창의인성센터

교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겨봐요!

대학은 왔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고요?
학교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희 편집위원들이 학교에서 진행 중인 여러 활동을 취재해 봤어요!
먼저 졸업생 여러분과 곧 2학년이 되는 분들, 취업할지 창업할지,
무엇을 할지 고민이 된다면 이곳을 방문해 주세요.
잡카페, 취·창업센터 그리고 창의인성센터에 찾아오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양여대 페스티벌 하이유

'하이유'란 한양여대가 출원한 공동브랜드 상표에요. '하이유'는 구성원의 소비활동, 자기개발, 창업활동 등으로 조합원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며 가족같은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워요. 특성화사업을 비롯하여 학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널리 공유하고 재학생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2017년 8월 31일(목)에 페스티벌 하이유를 우리대학 야외 공간에서 개최했어요. 참여한 기관은 홍보발전팀, NCS지원팀, 교수학습지원센터, 창의인성센터, 학생상담실, 취창업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산학협력처, 글로벌역량팀, 산학디자인센터, 도서관, 평생교육원으로 총 12개의 부스가 운영되어 모든 교내학생들에게 널리 홍보를 했어요.

STEP 1 :: 고민하기(잡카페)

글·윤상아(문예창작과 17학번)



취업을 눈앞에 두고 요즘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 지하1층에 잡카페가 위치해있어요.
잡카페는 말 그대로 진로와 취업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상담 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모든 학생이 직업심리검사를 받음으로써 흥미와 적성파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상담선생님과 함께 같이 찾기도 해요.
취업준비에 한창인 고학년에게는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등과 원하는 직업에 대한 채용정보를 알선해줘요. 또한 취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역시 얻을 수 있어요. 진로탐색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이곳을 자세히 알아봐요.

Q. 잡카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A. 잡카페는 말 그대로 진로와 취업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상담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학년은 직업심리검사를 받음으로써 흥미와 적성 파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정보를 같이 찾기도 합니다. 고학년은 취업준비를 하는데요. 자기소개서 작성방법과 면접 등 원하는 직업에 대한 채용정보를 알선해주기도 합니다. 진로탐색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Q. 현재 가장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직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요즘 전체적인 직업 트렌드는 IT입니다. IT가 전체적으로의 트렌드이기는 하나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관심 갖는 직업은 인사, 사무직, 마케팅, 서비스직, 디자이너, 출판편집 등입니다.

Q. 혹시 추천해주고 싶으신 직업이 있으신가요?

A. 무언가를 추천하기보다 학생들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찾았으면 합니다. 남들이 함으로써 멋져 보이는 직업은 자신과 맞지 않을 때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으니 자신의 적성을 찾아 그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았으면 합니다.

Q. 잡카페에 방문하는 학우들의 최대 고민사항은 무엇인가요?

A.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은 '취업할 수 있을까?'입니다. 취업난이란 소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에 취업의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하고 준비만 한다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 면접에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면접은 무조건 경험입니다. 대졸자 기준으로 구직통계를 보면 11번 지원했을 때 1번 서류가 붙고 6.6회 면접을 보면 1번 붙는다고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씩 늘려가더라도 많이 연습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제시해주셨나요?

A. 본인이 원하는 것과 부족한 것을 파악하고 그 해결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이력서 클리닉과 면접지도를 받아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족했던 것을 채워 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Q. 자기가 꿈꿔온 진로와 흥미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주시나요?

A. 본인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찾고 그에 따라서 직업을 정해줬습니다. 꿈꿔온 진로와 흥미가 맞지 않을 때 흥미만 가지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람마다 가치관과 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을 가게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직업 유형을 추천해주거나 단계별로 한 단계 걸쳐서 돌아가는 방법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Q.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라고 권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1학년과 2학년 구분지어 말해주세요!

A. 1학년은 1학기 때는 많은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적성을 찾을 수 있게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동아리도 들어가 보고 여러 직

업인들을 만나보거나 심심할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직업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 때는 목표를 정하고 준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자격증도 취득하고 꿈꿔온 직업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해보기도 하고 현장 실습 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학년 2학기 때는 본격적으로 취업에 도전해보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학생들이 무엇을 먼저 경험했으면 하시나요?

A. 학생들이 먼저 경험했으면 하는 건 아르바이트나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람을 마주하고 자기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Q. 잡카페에 오기 전 저희가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A. 자기소개서를 미리 쓰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예상되는 면접 질문 등을 준비해오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고민해서 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직업과 적성에 대해 고민하는 1학년들은 워크넷에서 직업심리상담을 받고 그 결과지를 갖고 오면 더 나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해 잘 알고 정보를 찾아보고 현재 고민상황에 대한 것을 가져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Q. 평소에 취업과 관련해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A. 직업에 대한 정보와 채용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채용 자격을 위해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학교에서 하는 자격증반과 취업 특강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하면 더 수월할 것 입니다. 직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Q. 잡카페 이용방법 부탁드려요!

A. 잡카페는 예약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이 많으면 1~2주전에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나 방문 학생이력관리 시스템에서도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취업시즌에는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예약하면 좋습니다.

Q. 앞으로 취업에 나갈 20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A.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합니다. 잡카페나 학과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흔쾌히 도와주실 겁니다. 또, 한양여대 학생들의 이미지가 정말 좋습니다. 다른 학교 교수들한테도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준비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많은 기회가 있으니 그 기회를 잡았으면 합니다.

STEP 2 :: 알아보기(취·창업지원센터)

글·조미선(패션디자인과 15학번)

"현대사회 변화의 소용돌이는 그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SF 영화의 대부분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자질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대학의 사명인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상(교양인, 전문인, 실용인, 봉사인)을 완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취·창업지원센터장 오태환

#창업

Q. 센터장님이 정의하신 창업의 의미가 궁금해요.

A. 사전적 의미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무언가 새로운 일을 세우고 출발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통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며 성공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Q.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성공한 창업가는 누구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성공한 창업가하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라든가 알리바바의 마윈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얼마 전 공병을 팔아 2,300만 원을 모아 재활용회사를 운영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7살 소년 라이언 히크먼의 기사가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사자를 구합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회사를 운영하는 소년의 예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전문대학 출신의 '야놀자' 창업자 이수진 대표는 성공한 창업자들을 보면 대부분 버티다 보니까 투자도 받고 결국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창업가의 공통점은 성공을 위해 버틸 수 힘은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서 가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Q. 창업에 도움 되는 책을 추천해 주세요.

A. 창업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성공 창업이 다양한 지식과 비례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피지기 할수록 성공창업에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페르난도 트리아스 데 베스 지음(권상미 역) '리틀 블랙북'은 체험담을 통한 창업가들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있어 추천합니다. 또한 창업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정진홍 지음

'감성 바이러스를 퍼뜨려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세상으로 갈수록 감성으로 무장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

Q.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없어도 창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A. 단호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100명 중 10명이 창업을 하고 10명중 1명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업의 목적을 돈에 두고 시작을 한다면 대부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미국의 7살 소년이나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와 같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한 콘텐츠와 노하우가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Q. 창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일까요?(예: 자본금 500 만원 이상, 동료 3명 이상 , 아이템 2개 이상 등)

A. 급속한 창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성공창업의 조건을 열거하라고 하면 정말 복잡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창업을 준비하는 우리대학의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창업조건이라면, 아이템과 열정을 꼽고 싶습니다. 자본금이나 인적구성은 차후의 문제이며 아이템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라도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우리대학 뿐만이 아니라 정부기관 및 지원기관 등의 지원을 통해서 사업장, 자금, R&D 및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약에 국가에서 센터장님에게 지원해준다면 어떤 아이템을 창업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A. 저는 은퇴를 하고 병원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웃음) 내과, 이비인후과 뭐 이런 병원 아니라, 동네에 아주 작은 'Toy Hospital'을 창업하여 3D 프린트를 활용한 어린이 및 키덜트들을 위한 장난감 병원의 원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Q. 만약 창업에 실패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A.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패란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망도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라 단정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4차산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창업 분야를 소개해주신다면?

A. 요즘은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4차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나와는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대학 학생들도 4차산업 분야의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섬세한 여학생들의 특성을 발휘한 '드론 항공촬영'이나 '인공지능 기반 실내조경', '도시농업' 등 다양한 아이디어 창업이 가능합니다.

Q. 스타트업 카페와 시뮬레이션 랩, i-창작실 등 창업과 관련된 각 기관의 역할을 설명 부탁려요.

A. 아이디어 → 사업화 → 예비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창작실'은 신개념의 도서관 열람실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출된 아이디어는 '스타트업 카페'의 창업매니저 및 창업지도자문단 등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창업 상담을 통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하고, 도출된 아이디어는 '시뮬레이션 랩'에서 레이저 가공 및 3D 프린터 출력으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Q.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한양여대생에게 격려의 말을 부탁드려요.

A. 한 번에 이루려 하지 마라~! 한 번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그 만큼의 가치 밖에 안 되는 것이다.

#취업

Q. 학교에서 취업과 관련하여 학우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A. 우리대학은 다양한 취업정보 인프라 및 학과 학생 중심의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Job Cafe, 취업 정보 메일링 서비스, 학과와 업체 간 간담회 지원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HYW-CMS(학생이력관리시스템)를 통하여 진로설계, 경력개발, 진로상담, 실전취업이라는 원스톱 취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업페스티벌 및 취업캠프, 1:1 입사서류 클리닉, 모의 SSAT 검사 및 특강 실시, 직업선호도 및 직무적성검사 실시 등 맞춤형 취업지도는 물론 구인, 구직을 연계한 일자리 개척을 위한 학과 활동 지원 및 취업실전 지원, 채용설명회 지원, 진로영역 개발 및 취업역량강화교육(전문가 특강, Job School, CAP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한양여대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을 통해 바라는 궁극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A. 우리대학의 사명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를 통하여 학문과 기술의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를 갖춘 인재로 사회와 국가 나아가 기업의 번영에 기여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여성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Q. 한양여자대학교는 취업 특성화 전문 대학교입니다. 그렇기에 취업 시 강점이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에 아쉬운 부분을 느껴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창(취)업과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책 읽는 것 외에)

A. 책 읽기 외에 부족한 인문학적 소양을 보완하고자 한다면 우리대학 창의인성센터(도서관2층)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창의인성센터에는 '인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여성리더 양성'을 위해 인성역량교육, 직업기초능력 향상교육, 창의교육, 융합전공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면서 삶의 질이 낮아짐을 느끼는데 이런 기류를 바꿀 수 있게 취업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세요.

A. 취업을 이야기하면서 이직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직자의 대부분은 일(업무)이 아니라 상사(사람) 때문에 이직을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취업의 진정한 의미는 조직에서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양여대 졸업생들의 '졸업'과 '취업'을 통해 바라본 각각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A.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기 보다는 졸업과 취업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경험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정적 존재이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졸업과 취업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은 졸업 후의 일로 생각하거나 만연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유동적인 것에 목표를 둘 수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목표를 설정한다면 졸업과 취업은 삶은 진행 과정이라는 하나의 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Q. 현실적으로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자격증 혹은 동아리, 인턴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취업을 위한 전공분야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지만, 스펙을 위한 자격증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쌓은 지식을 활용하여 취업을 하고 CEO에까지 오른 성공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전공수업에 영향을 주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끼를 살려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길잡이입니다. 그리고 인턴을 경험한다는 것은 전공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졸업 후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쓰면 좋은 부분과 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할지 미리 고민해 보고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성격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신의 성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적합성을 고려하여 도움이 되는 성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나 인재상을 그대로 적어 놓는다거나, 막연히 ~을 하겠다는 자기소개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만약 교수님이 면접관이라면 한양여대 학생을 뽑을 의향이 있습니까? 그에 따른 이유도 부탁드려요.

A.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근 교내서 마주치는 학생들의 분위기는 예전에 비하여 많이 밝고 명랑해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인사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마다 CEO의 경험이 있는 제가 느끼는 점은 "음~ 저런 친구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Q. 위의 질문에 이어서 한양여대 학생을 뽑든 뽑지 않든 아쉬운 점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해주세요.

A. 사회가 첨단으로 간다고 해서 옛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인들은 고칠현삼(古七現三)이나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타이트한 학업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4차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고전읽기 등 인문학적 소양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STEP 3 :: 찾아보기(창의인성센터)

글·김은진(문예창작과 16학번)

창의인성센터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신다면 여기! 꼭 읽어보세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우리학교의 특성화사업 목표는 서비스·창조산업을 위한 융합형 여성인재양성으로 이러한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이 바로 창의인성센터에요.

창의인성센터에서는 인성역량과 직업역량 그리고 창의역량 등 크게 세 가지 역량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재학생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인성역량팀과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3 STAR 인증제(직업기초능력 인증제)를 계획, 운영하고 있는 직업역량팀, 융합전공 복수학위제와 사회맞춤형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창의역량팀 이렇게 세 팀으로 센터가 구성되어 있지요. 먼저 인성역량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사랑의실천리더십 과정'이에요.

사랑의실천리더십 과정

'사랑의실천리더십 과정'은 우리대학 건학이념인 '사랑의 실천'과 연계하여 한양여대 재학생의 인성역량 향상을 위해 개발된 대학 자체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서는 근면, 정직, 겸손, 봉사 등 4개 세션에서 각각 3시간씩, 총 12시간의 활동을 해요.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면 '사랑의실천팀플' 사업에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어요. 팀별로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내어 6주 이상에 걸쳐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자기주도성과 창의성, 인성 등을 함양할 수 있어요.

직업역량팀에서는 3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심폐소생술 과정

'심폐소생술 과정'은 대한심폐소생협회 명의의 CPR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3시간 동안 직업기초 능력 중 직업윤리 교육으로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인 자동제세동기 AED의 사용법을 교육받을 수 있어요.

SMAT 커뮤니케이션 과정

'SMAT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직업기초능력 중 '의사소통능력교육'으로 비즈니스 매너와 이미지를 바탕으로 고객 심리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현장 커뮤니케이션 교육이에요. 3시간씩 5회동안 총 15시간을 교육받으면 한국생산성본부 SAMT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3 STAR 인증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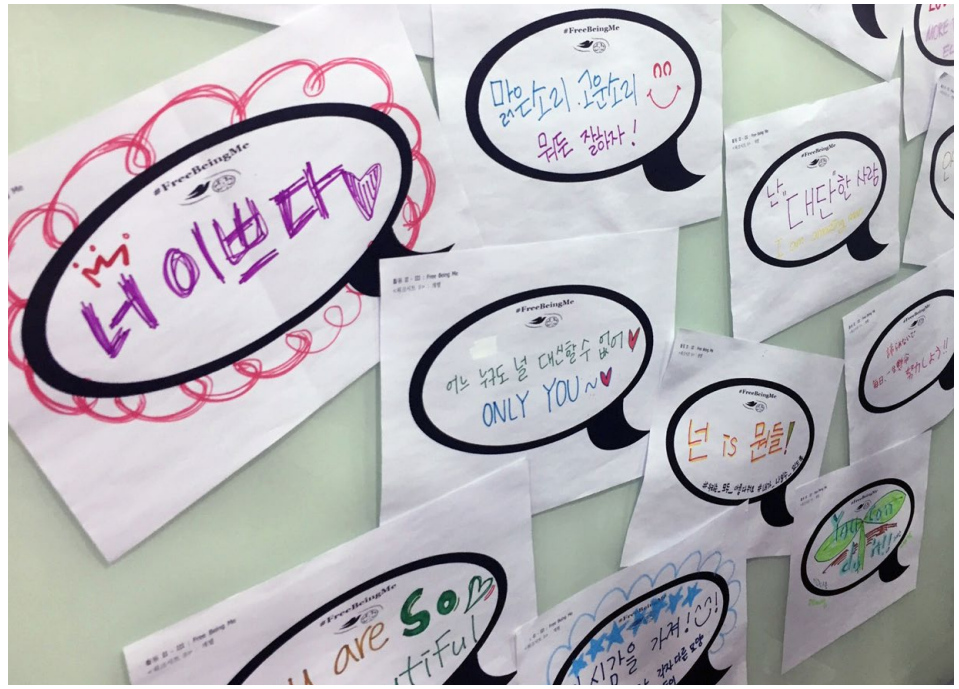
'3 STAR 인증제'는 한양여대가 선정한 HYWU 핵심 '직업기초능력'인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업윤리, 문제해결능력과 외국어소통능력, 정보능력 중 3개 이상의 영역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게 한양여자대학교 총장 명의의 직업기초능력 인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직업기초능력'은 학생들이 취업 시 전공 분야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인성, 소양, 봉사 등과 같은 기초역량을 의미해요.

핵심 직업기초능력 6개 중 3개 영역에서 직업기초능력과 관련된 비정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학생들이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3 STAR인증 부여 직업기초능력 영역과 세부 프로그램

- 대인관계능력(리더십능력, 팀워크능력, 갈등관리능력, 고객서비스능력): 사랑의실천리더십 과정(12시간)
- 직업윤리(공동체윤리, 근로윤리):심폐소생술 과정(3시간), 인성 및 직업윤리 특강(2시간), 총 5시간 교육 과정 이수
- 문제해결능력(사고력, 문제처리능력): 사랑의실천팀플 과정(30시간), 창의 과정
- 의사소통능력(경청능력, 언어구사능력):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실무 과정(15시간)
- 외국어소통능력(기초외국어능력): 외국어자격시험(TOEIC, TOEFL, TEPS, JPT, JLPT, HSK, TSC), 어린이테솔 등
- 정보능력(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IT 관련 자격증(컴활, 워드프로세서, MOS Master, ITQ, OA마스터, 전산회계, GTQ 등), 디지털 프로덕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 STAR인증 부여 방식

이용방법

-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확인한 후, 취·창업센터 취업마일리지 어플리케이션(HYW CMS)이나 공문을 이용하여 학과 혹은 개별적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 교내나 교외에서 자격시험을 치르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학생이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등록합니다.(IT 관련하여 한 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정보능력 STAR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외국어 자격시험의 경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학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 외국어소통능력 STAR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인증서 발급

지정된 6개 직업기초능력 영역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자격증 취득 자료를 학기말에 창의인성센터에서 취합하여 학생이 획득한 STAR 개수를 확인합니다. 이때 3개 이상의 STAR를 받은 학생에게 총장님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융합전공 복수학위 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창의역량팀을 소개할게요. 재학생에게 폭넓은 전공탐색 기회와 진로를 제공하고자 2014학년도부터 융합전공 제도를 실시중이에요. 매년 5월경에 개설전공에 대한 공고와 모집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공고하고 있어요. 기존 학과의 전공교과목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독립된 교육 과정을 제 2전공으로 이수하는 제도인데 전공과정별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융합전공이 병행 표기된 복수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어요.

본교 재학생 중 희망학생에 한해 융합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고, 2014학년도 이후 입학한 전문학사 과정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2년제 학생의 경우 1학년 하계 계절학기에, 3년제 학생의 경우 1학년 하계 계절학기 또는 2학년 하계 계절학기에 신청할 수 있어요(산업체 위탁생과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

'미래창업 비즈니스 전공', '국제통상 전공', '비즈니스 사무지원 전공', '창의문화예술 전공' 등의 융합전공 중 매년 학생들의 신청수요에 따라 2~3개의 전공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어요(자세한 내용은 창의인성센터에 방문하면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프로그램을 도서관 2층에 위치한 창의인성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답니다.(02-2290-2412) 우리 모두, 창의인성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2017 이슈

오늘날의 우리

42
1인 가구의 증가

48
대한민국 여성 최초 외교부 장관 '강경화'

50
소소한 삼삼함이 좋다

53
매년 발생하는 달걀 문제, 원인은 무엇인가?

2017 ISSUE

1인 가구의 증가

글·한민주(컴퓨터정보과 17학번)

1인 가구의 추세

1인 가구란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까지만 해도 9.0%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재 인구의 약 27%의 인구가 1인 가구에 해당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

1인 가구의 분류와 증가 원인

많은 전문가는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을 근로 빈곤과 사회 구조 문제에서 찾는다. 생계가 불안한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가 1인 가구의 급증을 촉발한 주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혼자 사는 이유를 조사했는데, 2030세대(20대와 30대를 아우르는 세대를 의미하는 말로, 50대와 60대를 의미하는 5060세대와 대비되어 사용됨)는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40대 이상은 배우자와의 이혼·별거·사별을 주원인으로 꼽아 1인 가구 증가엔 더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이유에 의한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가족의 모습이 보인다.

#빈 둥지 노인

빈 둥지 노인은 성인이 된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배우자를 먼저 하늘로 보낸 뒤 홀로 지내는 노인을 말한다. 1인 가구의 단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5명 중 1명은 빈 둥지 노인인데, 2035년이 되면 4명 중 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이들 중에는 단순히 자녀들과 따로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한다. 빈 둥지 노인들은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심리적인 현상을 느끼기도 하는데 가정이 빈 둥지만 남고 자신은 빈껍데기 신세가 되었다는 심리적 불안



에서 오는 정신적 질환이라 할 수 있다. 빈 둥지 증후군 외에도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을 거부하는 심리상태인 부엌 공포증, 부모봉양을 피하는 노인기피증 등이 있다.

#반려족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이미 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모두 반려족이라 불리지는 않고, 다른 가족 구성원 대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며 지내는 사람들을 말한다. 주로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60대 이상의 부부나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나홀로족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자신만의 여가생활을 하며 즐기는 이들을 말한다. 누에고치를 뜻하는 '코쿤(cocoon)'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코쿤족과 같은 말이다. 이들은 외부로 나가는 대신 자신만의 공간에서 안락함을 추구하는데, 그 예로 자동차에 특수 오디오를 장착하고 음악을 감상하면서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방에 음악감상실 수준의 음향기기를 갖추고 음악감상을 즐기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를 통해 세상과 접촉하고 배달시킨 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등의 행동 양식을 보인다. 나홀로족은 안정된 수입원을 갖고 있으면서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스트레스 등 외부 자극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결혼보다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2030 세대가 급속도로 늘면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4분의 1은 나홀로족으로 살고 있다.

#딩크(DINK)족

딩크족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용어이다. 이들은 자녀에게 쏟아부을 애정과 시간을 서로에게 쏟자고 결정해서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한 부부이며 자녀 양육이 결혼 생활을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견우와 직녀족

자녀가 없는 부부 중에서 직장 이동과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부부이다. 주말이나 연휴에는 배우자와 함께 지내지만, 평소에는 1인 가구처럼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변화

1인 가구가 부쩍 늘면서 이들을 위한 상품이 인기를 얻으며 1인 기준의 상품들이 생겨나는 시장의 변화와 이를 대표하는 방송, 신조어들이 생겨나는 추세이다.

싱글슈머(singlesumer)란 혼자라는 뜻의 싱글(single)과 소비자라는 뜻의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자신의 생활 방식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새로운 소비 주체로 자리 잡는 이들의 소비성향을 일컬어 'SOLO'라 한다. 즉 '나를 위한 소비'로 Self(자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구매'를 즐기는 Online(온라인), '바겐세일을 이용하거나 간편식을 구매하는 등 저렴한 것'을 선호하는 Low price(저가), 그리고 '시간 제약으로 한 번에 구매'하는 One-stop(편리성)의 성향을 말한다.

이들은 실용성과 접근성을 중요시해 대형마트보다는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며 소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선호한다. 그로 인해 편의점들은 상당한 매출을 내고 있다. 편의점에서는 라면, 샌드위치, 삼각김밥뿐 아니라 간단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찌개, 탕, 컵밥을 비롯해 족발 등 1인용으로 포장된 다양한 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1인 가구의 이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다양한 행사와 독자적인 간편식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도 끌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편의점을 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혼밥이나 혼술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며 요식업계에서는 1인분 외식 메뉴도 다양하게 판매함과 동시에 혼자 식사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도록 1인용 식탁을 마련한 음식점도 늘어났다.

1인 가구의 증가에 의한 변화에는 온라인 쇼핑몰의 확대도 있다. 온라인에서는 소량의 상품 주문도 가능하고 집에 사람이 없어도 경비실에 맡길 수 있어 마음 놓고 쇼핑을 할 수 있다.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혼자서 쇼핑을 할 수 있어 1인 가구 여성들이 주로 많이 이용한다. 최근 들어는 24시간 이내 발송하는 서비스도 생겨나 온라인 쇼핑몰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도 1인 가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작고, 스마트하고,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위한 제품이 개발되는 것이다. 1인용 밥솥, 미니 오븐, 미니 냉장고, 미니 청소기, 다목적 침대 등은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주거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셰어하우스인 '두레주택(민간보다 저렴한 집세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을 운영하고 있다. 집을 '소유'하기보다 '사용'하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주택 공간 일부를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 집에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주거 형태로, 침실이나 책상 등 개인 공간은 따로 쓰지만 거실·주방·마당 등은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셰어하우스는 뉴욕, 도쿄 등 주거비 부담이 큰 도심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주형태로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생활이 가능한 주택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동 주거 형식은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고 원룸, 고시텔보다 넓은 공간에서 살 수 있어서 편리함을 갖췄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동시에 외로움을 달래주는 업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떠나던 해외 단체 여행객이 대다수였지만 현재는 혼자 떠나는 여행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 여행사에 따르면 해외 배낭여행의 50%가 싱글족이라고 한다. 굳이 함께 가기 위해 서로의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거니와 여행 기간 동안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해 룸메이트를 선정해주거나 심지어는 1인 맞춤 여행 상품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요즘은 여행뿐만 아니라 뮤지컬이나 콘서트, 영화 등 공연 문화 업계에서는 아예 한 자리만 예매한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거나 패키지 상품을 권하기도 한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부동산 매매 시장과 투자,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양 시장만 보더라도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는 감소하고 오피스텔 및 소형 평형 아파트 분양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1인 가구와 이코노미의 합성어인 '1코노미'를 타깃으로 관련 금융상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주거와 저축 등 1인 가구 소비자의 관심 분야를 모아서 관련 혜택을 패키지로 구성한 상품들이 많이 등장했다. 신용카드는 편의점 등 1인 가구가 자주 이용하는 업종 위주로 높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적금 상품은 1인 가구가 선호하는 문화 혜택을 부가서비스로 내놓기도 한다.

이외에도 청소, 심부름 서비스, 장보기, 벌레 잡기 등을 대신해 주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업체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시장의 변화 외에도 1인 가구의 증가의 따른 변화에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을 예로 들 수 있다.

MBC TV에서 2013년 3월 22일부터 방영하고 있는 <나 혼자 산다>는 독신 남녀와 1인 가정이 늘어나는 세태를 반영해 혼자 사는 유명인들의 일상을 관찰 카메라 형태로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2013년 2월 10일에 방영된 파일럿 프로그램 <남자가 혼자 살 때>가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구성을 본떠<나 혼자 산다>가 만들어졌으며, 정규 편성이 확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현무, 김용건, 기안84, 한혜진, 박나래, 이시언, 윤현민, 헨리 등 다양한 세대의 1인 가구 유명인들의 일상이 주로 담기며 1인 가구의 일상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SBS TV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미운 우리 새끼>는 엄마의 다시 쓰는 육아 일기로, 엄마가 화자가 되어 아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여 모자지간의 육아 일기라는 모티브를 통해 순간을 영원히 오래오래 간직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1인 가구의 일상을 엄마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이야기를 담아낸다.

<혼술남녀>는 2016년 9월 5일부터 2016년 10월 25일까지 tvN에서 방영된 월화드라마이다. 매회 도입부에 주요 등장인물들의 혼술(혼자 마시는 술이란 뜻으로 쓰이는 신조어)장면과 사연이 내레이션과 함께 연출되면서 시작했다. 서로 다른 이유로 혼술하는 노량진 강사들과 공시생들의 알코올 충전 혼술 라이프를 보여줬다.

<발칙한 동거 빈방 있음>은 MBC TV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며 2017년 4월 14일부터 방영되고 있다. 연예인 집주인, 셋방 식구의 동거로 사람이 사람에게 적응해가는 다양한 모습들과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지만 동등하지 않은 관계와 예측 불가 상황 속에서 집주인과 셋방 식구가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관찰하고 시청자에게 관계와 소통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인 가구의 미래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복지제도가 발달해 혼자 사는 것이 편리한 북유럽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의 47%, 4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의 26.7%에는 근접한 수준이다. 더욱이 세계적으로도 1인 가구화 추세가 계속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증가세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앞으로 2035년에는 1인 가구의 비율이 3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가족을 위해서나 가족에 의해, 학업이나 직장을 위해, 스스로 투자하기 위해 등 자의로든 타의로든 혼자 살게 되는 이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는 싱글의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여성 최초 외교부 장관 '강경화'

글·**조아현(니트패션디자인과 17학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UN 정책 특별보좌관을 지명하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영어방송 PD와 아나운서로 활동하였으며, 미국 매사추세츠대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UN 사무총장 당선인 인수팀 팀장, 국회의장 국제 비서관, 외교통상부 장관보좌관 등을 지낸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외교가에 강경화라는 이름이 알려진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역하면서부터였다. 뛰어난 영어 실력과 세련된 매너 등을 인정받아 김 대통령의 영어통역사로 발탁됐다.

임명되기 전부터 일각에서는 자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등을 문제 삼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이 많았고 특히 야당에서는 지명 철회 요구 등의 반발이 심하였다. 이런 문제보다 더한 사건들도 많았지만 크게 보도되지 않고 넘어가는 정치인이 많았는데 유독 강경화 장관만 여러 의혹이 더해져 크게 보도되었다. 여러 가지 비판과 문제에도 무릅쓰고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외교부 국장 이후 2006년부터 UN에서 활동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쌓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민감한 외교현안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적임자, 비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첫 여성국장과 한국 여성 중 UN 최고위직에 임명되는 등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 최고 여성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닌 외교전문가로, 내각 구성에서 성 평등이랑 관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UN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다. 영어 실력이 수준급이라 통역없이 논리적인 전달을 할 수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직접 상대로 한 외교 활동은 한 적이 없고 북한 관련 업무를 직접 다뤄보지 않았다는 것이 약점이다. 그렇지만 외교는 장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실장과 외교부 1, 2차관까지 팀을 이뤄서 하므로 그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는 충분히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고 야 3당의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이다. 민주주의 원칙도, 역량 있는 외교부 장관이라는 실리도 찾아볼 수 없는 인사 참사에 불과하다, 국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고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등의 비판이 많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고 비난한 사람들 입에서 다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일을 처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평소 요란한 화장과 헤어스타일을 하지 않지만, 전혀 초라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공이라 말하는 내적 이미지와 열정이 있어 더욱 그녀를 돋보이게 한다. 임명되기 전 위안부 할머니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지지하는 발표를 하였고 단순히 여성이라서가 아닌 자신들의 평생 한인 일본으로부터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적격자임을 알렸다. 일본은 그녀가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되는 것을 꺼렸다. 그만큼 국제무대에서 여성의 인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 두려워하였던 것 같다. 여성이 외교부 장관까지 올랐다면 아무리 배경이 좋았다 해도 남자들보다 두 배, 세배는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여성을 두고 "딜한다", "강경화를 날린다" 등의 말을 입에 올리는 중장년 남성들이 있다. 여성을 차별하는 환경을 누렸고 여성들의 희생 덕분에 많은 자리에 오른 것을 모르고 여전히 여성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중의 하나인 '여성 장관 30% 이상'을 지켰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성 장관 임명이 2~3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대 여성 장관이 49명 정도 되고 고위 공직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 섰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돼 왔다. 하지만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를 가더라도 일부 사회를 제외하고는 여성의 지위가 우리나라보다 높다. 여성 장관 비율의 증가 현상이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 여성이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소소한 삼삼함이 좋다.
-새로운 사회 트렌드 SOSO

글·조미선(패션디자인과 15학번)

지난 2017년 초부터 줄곧 유행하던 라이프 스타일인 ‘YOLO’는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라는 슬로건으로 큰 유행을 이끌었다. YOLO(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여 소비하는 태도, 한번뿐인 인생을 즐기자)를 말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과 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YOLO의 본래 취지와는 멀어진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리게 된다.

단순히 지금 당장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내 평생 내 꿈을 위한 목돈을 버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일상생활을 바쁘게 살아가는 평범한 학생인, 나에게 YOLO는 낯설고 멀게 만 느껴진다. 뉴스에서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와중에 긍정적인 취지로 ‘미래만 보지 말고 지금 현재를 즐기라’는 사회적인 움직임은 매우 반가운 소리지만 조금 더 친절하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이렇게, 나처럼 인생을 무턱대고 즐기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생겨난 단어가 있다. “즐기면서 사는 것을 화려하게 논다”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닌 본인이 처한 상황, 일상 속에서 행복해하는 것. 바로 ‘SOSO’이다.

‘SOSO’는 영어 사전 상으로도 ‘그저 그런’이라는 뜻이며 한국어로도 소소하다와 비슷한 맥락을 가졌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라이프 스타일 키워드인 ‘SOSO’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에서의 특별함을 찾아가라고 외친다. 아마 특별하다고 하면 나처럼 특수한 경우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SOSO’가 지향하는 삶을 소개하고 싶다.

‘특별’은 ‘보통’의 반대다. 그래서 특별하다는 말은 그를 빛내주는 많은 보통들이 존재하기에 존립이 가능하며 보통이 없이는 특별도 없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나에게 “넌 특별 하니?”라고 물으면 당연히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니?”라고 묻는다면 망설여질 것 같다. 우리네 보통의 삶에서 특별한 모습을 찾기 위해 ‘SOSO’에 대해 조금 더 다가가 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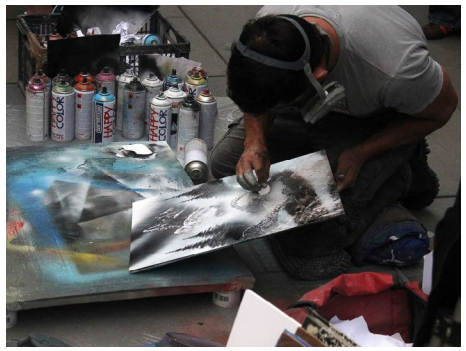


‘SOSO’의 첫 S는 ‘Slowly but surely’라는 의미로 바쁜 사회인들이 조금은 주변도 살펴보는 여유를 가지며 천천히 그 순간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둔다.

예를 들어 나에게 이 S는 가벼운 걸음부터 시작된다. 요즘은 사람들이 홍대나 이태원, 가로수길에서 연남동, 망원동, 부암동, 익선동 등 화려한 번화가에 들릴 때마다, 한적하지만 나름의 소소한 멋이 있는 가게로 발길을 돌린다. 이렇게 조용한 맛이 있는 건물을 찾다보면 눈이 부실정도로 화려한 간판들과 너도나도 맛집이라 주장하는 음식점들과 인파와 비례하여 생기는 홍대 길거리의 아메리카노 플라스틱 컵과 쓰레기들. 홍대라는 공간이 주는 느낌은 언제나 바쁘고 조금은 억세며 편하지 못하다. 거리에 넘치는, 자기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과 부딪치고 마주 보는 가게마다 서로 볼륨대결을 하며 최신노래를 틀고 빽빽한 건물들로 인해 자연이 가려져 그야말로 숨 막히고 멀미가 날 지경이다.

그렇다면 요즘 뜨는 익선동은 어떨까. 우선 한옥으로 된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많이 침해하지 않아 눈이 편하다. 또한 사람들의 옷차림도 누군가를 의식한 것이 아닌 편안한 옷을 많이 입었고 시끄러운 음악 대신 매미나 새소리가 동네를 채운다. 하지만 소소하기에 새로 발견할 수 있는 공간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SOSO의 두 번째 'O'는 'Ordinary Occasion', 평범한 일상이다. 요즘은 TV만 틀어도 수 많은 스타들의 리얼리티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이 혼자서 어떻게 지내는지, 여행을 가서 벌어진 일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실제 신혼부부가 민박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리얼리티처럼 보여주고, '대단한 스타의 모습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하는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특별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의 평범한 모습을 보면서 평범함이 있기에 특별함이 따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평범함이 특별할 수도 있다는 희망도 느낄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방송을 보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기도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냥 TV프로그램을 틀어 놓은 채로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가볍게 접촉하지만 나와 비슷한 면을 발견하는 순간 집중하게 되고,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너무 평범하게 느껴졌던 나의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한 점을 찾게 되는 것이다.



SOSO의 세 번째 'S'는 'Silent, but Wonderful Life', 소리 없이 멋진 삶이다.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요란하지 않아도, 남들이 관심 갖지 않아도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요즘 대부분의 SNS 이용자들이 실제 자신의 기분이 어떻건 SNS으로 보이는 몇 가지 글자와 사진이 그들이 바라는 분위기와 자아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스스로 테두리 안에 갇혀 지어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보다도 중요한 실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삶에 집중하고 행복해하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해시태그에 빼놓지 않는 'YOLO'. 진정한 궁극의 'YOLO'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 같다.

'SOSO'에서 마지막 'O'는 'One of a kind'로 남들과 다른 나만의 특별함을 살려 행복을 찾는 것이다. 얼마 전, 뉴스에 나를 위한 집에서 즐기는 Home Bar를 만드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했다. 나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 Bar를 만들지는 않지만, 그런 방식으로라면 나도 내 방에 온통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으로 가득 메운다. 좋아하는 음료수를 가장 예쁜 와인잔에 따라놓고 노트북을 부팅시켜 영화를 보기 제일 최적의 상태로 내 방의 구조를 세팅시킨다. 그러면 내 방은 내 상상 속의 작은 영화관이 된다. 책을 읽을 때도 이처럼 해놓으면 훨씬 분위기가 산다. 방은 그저 똑같은 방이 아니라 특별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누가 보기에는 너무 소소한 일상일 수 있고 누구나 한번쯤 해본 일 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가장 많이 있는 공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향, 과자, 옷, 조명, 음악)로 채워놓으면 색다른 기분도 들고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금에 와서, 나는 단순히 시간에 쫓기는 척을 하며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유들을 놓치고 살았던 것이 후회된다. 가장 어려운 것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의 균형을 맞추는 중용의 삶인 것 같다. 단순히 즐기기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유를 놓치고 살라는 것도 아니다.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을 해가면서 소소한 행복과 여유를 즐기는 것, 정신없는 일상 속에 특별함을 찾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반대로 너무 늘어지게 여유로운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내가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해주는 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매년 발생하는 달걀 문제, 원인은 무엇인가?

글·**윤상아(문예창작과 17학번)**



닭의 해인 2017년, 닭과 관련된 일이 넘쳐나고 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한 번씩은 모두 AI 그리고 살충제 달걀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여러 이상기후가 넘쳐나는 요즘, 전대 없이 무더운 여름이 강타한 대한민국에 퍼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I. 그리고 갑작스레 나타난 살충제 달걀. 국민 식품으로 모두가 애용하던 달걀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 때문에 닭이 가장 많이 소비되어야할 시기에 잘 되지 않음은 물론 몇몇 농가들은 텅 빈 장만을 가지고 있다.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가장 안전지대라고 불렸던 제주도까지 확대된 AI. 급작스레 일어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살충제 달걀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H5N8을 비롯한 여러 AI 바이러스의 발생원인과 이들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AI는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의 약자를 뜻한다. 닭, 오리 등 야생 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으로 드물게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바이러스다. AI가 위험한 이유는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번 늦겨울에만 발생하던 AI가 갑작스레 여름에 나타난 이유는 비가 오지 않아 땅의 저항성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6월 6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AI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그러므로 발생농가 고위험군은 예방조치를 잘 단속하고 일반 시민들은 가금농장의 방문을 자제하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AI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만큼 발생한 이후로 조류 관련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고 동물원에 가

도 감춰진 새들의 실루엣과 지저귀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달걀 가격 역시 6년 만에 최대치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더불어 금값이라 불렸던 달걀값은 전년 동월비와 비교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AI가 발생하면 많은 이들이 걱정하며 사는 것을 피한다. 그러나 AI 바이러스는 섭씨 75도 이상에서 30초 이상 익혀 먹는다면 죽기 때문에 삶거나 튀겨 먹는 닭과 오리로는 AI에 감염될 리가 없다고 한다.

중앙대 설대우 교수는 올해 발생한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었으나 이전에 발생한 조류독감 H5N1과 H7N9는 감염된 사례가 있다고 말하며 모든 조류독감은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 AI에 감염된 사례가 중국과 홍콩에서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불안이 따르지만 많은 변종 중 감염된 사례를 띄는 변종이었다. 오리와 닭에게는 위협적이지 않으나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변종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생하는 조류독감 사례는 이 같은 변종과는 다르다.

살충제 달걀은 낮은 위해성에도 불구 많은 파문을 낳았다. 세계보건기구는 피프로닐을 독성이 있는 2급 위험물질로 분류한다. 개미나 바퀴벌레 퇴치 약으로 사용된다.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아 섭취 가능성이 높고, 섭취 시간과 기간에 따라 신장 등 장기에 영향을 주곤 한다. 성인은 하루에 피프로닐 농도 2.38mg, 영유아는 0.72mg을 넘어서지 않으면 독성에 딱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가라앉지 않는 불안에 안전한 달걀을 찾고자 한다.

축산물질평가원에서는 달걀의 등급 정보를 확인해 살충제 달걀과 안전한 달걀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리는 식품안전나라에서 달걀 중 살충제 부적합 농가들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된 자료는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살충제 달걀은 달걀 정보, 등급 판정일,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살충제 부적합 등급달걀 번호 - 0800103KN, 0800104KN, 0802402NH, 1000201DM이며 이 달걀들을 피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AI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한 하반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질병 10가지 중 하나로. 스스로 예방할 수 있기 위해 일러준 몇 가지 방법을 적고자 한다.

많은 야생 조류들과 접촉하는 면과 시간이 늘어난 만큼 우리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연하지만 축산 농가와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며,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에 협조한다. 둘째로, 야생 조류와의 접촉을 피하며 손을 자주 씻도록 해야 한다. 평소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던 살충제 달걀은 인체에는 큰 위험을 끼치지 않으나 앞으로도 달걀의 등급란을 먼저 확인하고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등 우리는 더욱 신경써야 한다.

출처 및 참조
http://weekly.donga.com/3/all/11/964849/1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606.99002010652

http://www.ekape.or.kr/view/micro/eggetrace/eggetraceSearch.asp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3673606616030272&DCD=A00703&OutLnkChk=Y

사진 참조
http://www.gukjenews.com/news/photo/201708/766578_551615_2044.jpg



문화생활

삶 속에 문화를 더하다

56
HOLIDAY LAND FESTIVAL

58
나폴레옹

63
#셀피selfie_나를 찍는 사람들

66
슈퍼배드3 : 프리즌 브레이커

68
픽사 PIXAR, 30주년간의 여정

70
Memory : 뮤지컬 캣츠

FAKE VIRGIN PRESENTS

HOLIDAY LAND FESTIVAL

글·**이유빈(문예창작과 16학번)**



7월 29일~30일. 페이크 버진이 주최하는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이 서울 난지 한강 공원에서 열렸다. '여러분이 꿈꾸는 라인업과 함께할 올여름 최고의 홀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시작한 페스티벌은 시작 전부터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개성 있는 아티스트들을 라인업에 등장시켜 블록버스터급의 라인업이라는 평으로 시선을 끌어왔다. 페스티벌 내에는 메인 스테이지와 서브 스테이지 총 2개의 무대가 설치되었고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팝 밴드를 서브 스테이지에서는 클럽 사운드의 아티스트들을 등장시켜 공연의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유명 해외 뮤지션의 내한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주최 측의 대응으로 관객들은 실망을 품고 돌아와야 했다.

Thundercat (name. Stephen Bruner)

베이스시트의 장인으로 불리는 썬더캣은 58회 그래미 어워드의 아티스트 수상자이자 유명 해외 아티스트와의 작업으로 더욱 유명한 인물이다. 썬더캣이라는 솔로가 나오기 전에는 수어사이덜 텐던시스(Suicidal Tendencies)라는 밴드의 베이시스트로 있기도 했었고 다양한 뮤지션의 세션으로 활동했었다. 또한, 썬더캣은 환상적인 베이스 소리뿐만 아니라 재즈



를 중심으로 한 펑크와 일렉트로니카 사운드 그리고 대단히 실험적인 요소들에서 나오는 가성이 매력적인 아티스트이다. 굉장히 신나는 음악들은 아니지만 썬더캣 특유의 따뜻함이 담긴 소울로 흥겨운 멜로디.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유머러스한 가사들은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기 충분하다.

#추천곡# Them Changes, Uh Uh, Show You The Way

Oh Wonder (name. Josephine, Anthony)

영국 인디신의 기대주이자 혼성 밴드이다. 영국 런던에 있는 홈스튜디오에서 직접 작사작곡을 해 데뷔앨범 'Oh Wonder'를 발매했으며 올해 새 앨범인 'Ultralife'가 나왔다. 특히 첫 앨범에서는 매달 한 곡을 유튜브와 사운드클라우드에 발표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라이브가 인상적일정도로 그들만의 독특한 감성을 소화하며 자신의 음악에 심취해 관객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 밴드이다. 일렉트로닉과 신스팝을 기반으로 하는 느릿하고 서정적인 음악과 보컬 특유의 고요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노래에 담긴 치유와 소통 그리고 위로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해준다. 여름 밤, 잔잔하면서도 나지막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음악들이다. 오원더의 맴버인 안토니는 "우리 음악이 사람들에게 있어 하루를 견디는데 도움이 됐다면 우리의 임무는 끝난 것"이라고 자신들의 밴드를 설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추천곡# Without You, Lose it, High On Humans

Years & Years (name. Emre, Mikey, Olly)

영국의 신스팝 밴드로 mtvU에서 선정한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이자 BBC에서 'Sound of 2015'를 수상한 아티스트이다. 보컬인 올리가 대부분의 곡과 멜로디를 쓰며 남성 트리오 밴드로는 꽤 고역대의 음악들이 주를 이룬다. 처음에는 2012년에 5명의 멤버들이 세션을 이뤄서 활동했지만 2013년부터는 일렉트로 팝 트리오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정규 1집인 'Communion'이 나오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프론트 맨인 올리는 영화배우로 먼저 데뷔한 후 음악을 접했으며 쇼맨쉽이 강한 보컬이기 때문에 라이브를 하다가 춤을 추기도 하면서 흥을 돋우는 밴드로 유명하다. 주로 신스팝과 일렉트로니카, 하우스 뮤직이 접목한 상쾌한 멜로디에 세련된 가사의 음악이 가장 큰 매력이다.

#추천곡# Shine, King, Des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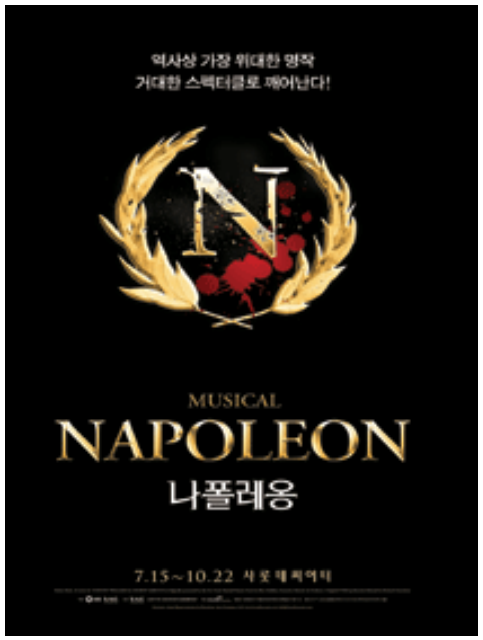


나폴레옹

Musical NAPOLEON

글·**조미선(패션디자인학과 15학번)**

"나폴레옹은 나를 매혹시킨다. 그는 역사를 움직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 드문 사람이었다" -스탠리 큐브릭-



나는 어릴 때부터 큐브릭의 영화를 접했고 그가 천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그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파헤치기 위해 스탠리 큐브릭 전시회가 열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는 했다.

기회가 되어 방문한 '스탠리 큐브릭 전시회'는 그가 만든 영화를 소개로 하는 공간이 주를 이루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영화제목이 적혀있는 방이 있어 기억에 남았다. 방은 스탠리 큐브릭이 죽기 직전까지 찍고 싶어 했던 나폴레옹의 영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다. 한 공간이 나폴레옹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었는데 나폴레옹의 서적들과 날짜별로 그의 하루일과를 적은 카드들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가까이 가서 카드를 살펴보니 나폴레옹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어떤 요리를 먹었다 등의 정말 사소한 사생활까지 적혀져 있었다. 너무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소름끼치기도 했지만 그



만큼이나 나폴레옹은 스탠리라는 천재의 흥미를 끄는 인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나폴레옹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큐브릭을 정말 좋아하고 또 그의 상상력에 매번 감탄했는데 그런 큐브릭이 좋아하는 나폴레옹이란 사람은 얼마나 매력적일지 감히 상상도 안됐다. 나폴레옹의 이야기는 고전이라는 고리타분한 선입견이 있었고 학창시절에 '황제-세계사'로 배웠던, 그의 유명한 명언인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와 유럽전체를 통일 시킬 뻔했던 혁명가라는 사실이 내가 가진 그의 정보의 전부였다.

내가 좋아하는 감독, 그 감독이 마치 나처럼 평생에 걸쳐서 파헤친 사람인 나폴레옹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모르는 나폴레옹의 모습이 너무 궁금해져서 일단 무작정 인터넷에 나폴레옹을 검색해보았다. 우연인지, 아니면 나와 필연이었는지 가장 먼저 뜬 내용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인 음악과 관련한 나폴레옹에 대한 정보였다. 그리고 알게된 사실은 그를 천재들을 끌어 들이는 강렬한 지도자 그리고 그 강렬함이 결국 자신의 죽이는 독이 된 역사 속의 실패자라는 것이었다.

음악의 성인,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3번은 나폴레옹에 대한 존경심과 찬사를 표현하기 위해 바친 곡이였다고 한다. 마치 나폴레옹처럼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의 선율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요구되고, 어느 구간에 이르러서는 작품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광렬한 소리를 내는 이 교향곡의 이름은 '영웅'이다. 베토벤은 악보의 제목을 나폴레옹의 성인 '보나파르트'로 적었으나, 후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기 위해 스스로 대관식을 치르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제목을 찢어버리고 '영웅-한 위대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라고 바꿔버렸다. 그리고 훗날, 나폴레옹의 비보를 들은 베토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이미 17년 전에 이 비극을 음악으로 표현해두었다."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위한 작곡한 곡은 '영웅'단 하나만이 아니다. 그는 나폴레옹이 지위하는 프랑스 군을 위해 칸타타를 직접 작곡, 심지어는 공연에서 직접 지휘에 나섰다. 비록 베토벤은 황제가 되

고자 했고, 그 시도가 실패로 끝난 지도자에게 돌아선 사람이었으나, 그의 제자인 체르니에게 “나는 그를 증오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했던 말을 보면 베토벤이 얼마나 그를 존경했는지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알게 된,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때, 나폴레옹과 같은 인물들은 이 단어의 어원이 된다라는 사실이 아주 놀랍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신의 은총’이란 뜻의 그리스어 ‘Kharis’는 고대에는 ‘신에게 재능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이 있는 누군가를 설명하는 단어로 쓰이게 된다. 완벽한 지도자, 리더의 자리를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으면서 그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자를 보고 ‘카리스마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나 역시 그의 카리스마 때문인지, 그에 대한 정보를 읽는 것만으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더욱 알고 싶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때마침, 뮤지컬 ‘나폴레옹’이 국내 초연으로 공연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또 다른 거장들의 손에서 탄생한 나폴레옹을 먼저 만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폴레옹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나를 매우 설레게 만든 것은 나의 첫 뮤지컬이 나폴레옹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패션디자이너에 대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학문에 대한 공부는 물론이며, 예술을 접하며 보고 느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에서 흘러나오는 예술의 정보를 시간이 주어지는 한, 최대한 열심히 받아 마시기 위해 노력해왔었다. 하지만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배우는 학생인 입장인 나에게 접하기 쉽지않은 예술이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지금까지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무엇보다, 뮤지컬은 종합예술이고 가장 다채로운 장르가 하나의 시나리오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생각해왔다. 따라서 나는 단순히 뮤지컬을 배우와 연기를 통해 느끼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자고 마음먹었다.

뮤지컬 나폴레옹의 원작에서는 정치적 야망과 조세핀과의 사랑을 중점으로, 위대한 지배자와 폭군이라는 이면 사이에 갈등하는 내용이 서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국내 뮤지컬 나폴레옹에서는 영웅 나폴레옹보다는 인간 나폴레옹에 대해 보여주는 것에 초점에 맞춰졌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폴레옹을 정복했던 유일한 여성이었으나 비극의 끝났던 조세핀과의 에피소드, 나폴레옹의 정치적 스승이지만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를 배신하려는 탈레랑의 이야기가 추가되어 더욱 드라마틱하게 그려졌고 인물은 훨씬 입체감 있게, 서사는 더욱 유연하게 보여졌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나폴레옹하면 빠질 수 없는 알프스 원정, 노트르담 성당에서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른 황제 대관식, 그리고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온 워털루 전투였다. 웅장한 노래와 격렬한 안무 그리고 흔들림 없이 진행되는 연기들은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흘러갔고 보는 순간 내내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다.

뮤지컬에서 극의 내용은 둘로 나누어 1부, 2부로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흐름이 끊기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는데 나의 괜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투를 벌이는 나폴레옹, 그리고 전투를 마치고 돌아와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연인, 탈레랑의 계략으로 몰락하고 좌절하는 남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폭군의 모습을 한 황제. 한 장면, 그리고 다음 장면마다 다른 얼굴을 한 나폴레옹의 모습이 나오지만 전부 같은 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극의 가장 중요한 흐름인 기승전결이 뚜렷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박진감이 넘치고 다음 장면이 기대되는 공연이었다.

아쉬웠던 점은 내가 처음 뮤지컬이라는 분야를 접하게 돼서 그런 건지, 온전히 무대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화면을 가득 채운 영화 스크린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닌 입으로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연기를 펼치는 것에 대한 무언가 낯선 감각과 익숙하지 못한 시선처리가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또 다른 아쉬운 점으로 주인공이자 가장 기대했던 인물인 나폴레옹에게 압도적인 매력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나폴레옹이 장군으로서, 황제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어떻게 사람들이 스스로 따를 수 있게 만드는지,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나와 주어야 할 그의 전투 방법과 화술 같은 장면이 부족했고 내가 미리 나폴레옹에 대해 알고 가지 않았다면 몰랐을 법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임과 동시에 역사적 폭군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치들이 많이 부재했던 것도 뮤지컬이라는 장르 특성상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여러 차례 혁명에 성공하고 마지막 몰락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 격렬하게 변하는 그의 감정선을 나도 같이 따라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3시간의 러닝 타임은 누군가에게 길게 느껴지겠지만 나는 극에 몰입해 재밌게 봐서 그런지 무척이나 짧게 느껴졌다. 또한 이번 뮤지컬을 통해 나폴레옹이 살던 시대로 가서 그의 바로 옆에서, 그를 지켜보는 한 명의 병사 혹은 한 명의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에 내게는 너무나도 값진 경험이었다.

사실, 예술작품은 어떤 인물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이를 형태로 구현해서 작업물-결과가 도출되고 나는 인물의 결과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 인물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고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상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여겨왔었다. 그러나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예술을 접하면서 나폴레옹에 대한 생각이 극을 쓴 1차적인 인물에서 끝나지 않고, 배우들이 자신의 신체를 활용해 연기하고 소리 내며 새로운 나폴레옹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또 다시 새로운 나폴레옹을 써내



려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깨달음을 준, 인간이 인간을 통해 보여주는 가장 고차원적인 예술 행위를 완벽하게 표현해 준 배우들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여운처럼 남은, 뮤지컬의 가장 큰 장점은 생동감이었다. 무대 위와 무대 아래. 관객과 배우는 같이 호흡하고 나는 극 속에 일부가 되어 시선과 반응으로 배우가 맡은 인물과 함께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내게 신기하게 다가왔던 점은 배우가 한 곡이 마치면 관객이 박수를 쳐주는 것이 매너라는 것이었다. 뮤지컬을 보는 도중, 첫 노래가 끝나고 큰 감동을 받아 박수를 치고 싶지만 괜히 다른 관객들의 몰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멈칫 했었다. 그러나 관객에게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내준 배우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 매너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내가 감동을 받은 만큼 커다란 박수를 보내 주었다. 아무래도 첫 공연이다 보니 내 스스로에게 아쉬운 점과 좋았던 점이 많이 생겼던 것 같다. 그 동안 무용수인 친구 덕에 발레와 현대 무용을 관람할 기회가 많았는데, 뮤지컬과는 비슷한 지점도 있으면서 서로 다른 감동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얼마나 예술이 끊임없는 감정표현의 방법이 가능한지 깨달았다. 내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시나리오가 더 극적이고 대사의 유입이 있는 뮤지컬이, 나처럼 좋아하는 인물에 대한 감동을 느끼기에는 더욱 제격인 것 같다.

이제 공연이 막을 내렸으니, 다른 방법으로, 다시 처음인 것처럼 그를 만날 시간이다.

*#셀피selfie_*

나를 찍는 사람들

글·**한민주(컴퓨터정보과 17학번)**

우리는 아름다운 장소에 갈 때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혹은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셀피(selfie)를 찍는다. 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또 SNS에 올리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는 안국역에 위치한 사비나 미술관에서 열리는 <#셀피selfie_나를 찍는 사람들>전에 다녀왔다.

과거에는 자화상, 일기, 자서전을 통해 자신을 탐색했다면, 현대는 모바일미디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의 하나로 '셀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SNS에 올려지는 셀피(selfie)는 자신을 프로모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과거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해 온 자화상 개념에서 보는 이를 인식한 자기 연출 현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회현상이라 할 수 있다. 셀피(selfie)의 사전적 정의는 '스스로'를 뜻하는 self와 '인물사진'을 뜻하는 portrait의 합성어로 자기 자신을 촬영하는 행위이다. 즉,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얼굴을 찍어 SNS에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셀피라는 단어는 2002년 호주의 온라인 포럼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인스타그램과 플리커, 트위터 등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SNS가 확산하면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혼자만의 놀이 같은 셀피는 오늘날 SNS의 발달로 셀피를 즐길 뿐 아니라 셀피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타인의 셀피를 접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사비나 미술관은 이 시대의 셀피 현상에 주목해 21세기형 현대인의 자화상을 전시를 통해 탐구한다. 이 전시는 다른 전시들과는 다르게 인증샷 시대를 주목

해 미술관에서의 사진 촬영이 자유롭지 못했던 틀에서 벗어나 관객은 전시 감상과 더불어 다채로운 방식으로 셀피와 미술관 인증샷을 남길 수 있도록 모든 작품을 오픈했다. 8팀의 참여 작가들은 다양한 형식의 작품으로 관객이 자가 촬영을 할 수 있는 셀카 존을 미술관 곳곳에 설치하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다채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전시장은 1층, 2층, 지하층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층에는 셀피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어있다. 인증샷을 찍기에 최적화된 조명과 구조물, 화장품까지 준비되어있어 소위 말하는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 쉼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되는 공간이 있다. 김가람 작가의 <#SELSTAR>는 셀프 메이크업 퍼포먼스로 메이크업 도구로 화장 후, 셀카 전용 카메라로 셀카를 찍어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공유함으로써 완성된다. 작가는 매일 미술관의 주인공을 선정해 전시장에 '오늘의 셀스타'를 영상으로 상영한다.

2층 전시장은 작가들 스스로 찍은 자화상을 통한 예술가의 셀피를 선보인다. 자신의 정체성을 반전된 사진으로 보여주는 고상우 작가는 관객이 반전효과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현실이지만 비현실적이고 낯선 시각적 효과와 동시에 현실과 환상에 대한 간극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가상의 인물을 지속해서 올리며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아말리아 울만은 이 시대의 현상을 SNS 퍼포먼스로 보여주며 온라인에서 보이는 진실과 거짓에 대한 생각을 이끈다.

지하전시장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공간이다. <Walls and Doors>는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면 옆방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문은 30초 뒤에 닫히며 곧 이동을 가로막는 벽이 된다. 미디어는 타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소통의 문이 되지만 반대로 사고의 확산성을 막는 벽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방이다.

또한, 전시장에 4개의 모니터와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모르는 타인이 한 테이블에 마주한 것 같이 보이게 한 한경우 작가의 가까운 만남이라는 작품이 있다. 3개의 층의 전시장에 각각 흩어져서 놓인 4개의 테이블에 놓인 의자에 앉은 관객은 테이블 위에 설치된 카메라에 인식된다. 각각의, 전혀 모르는 4명의 관람객은 우연히 하나의 모니터에 마주하며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연출되어 자연스럽게 소통을 시도하게 하는 작품이다. 말이나 글의 소통이 아닌 손짓과 표정으로 소통이 가능한 이 작품은 다른 장소이지만 같은 공간 안에 앉은 자신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SNS 시대의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방식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그 밖에 국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흥미롭고 이색적인 셀피 자료를 모아 셀피 현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셀프 포트레이트를 찍는다거나 자신이 찍힌 사진으로 음악과 함께 미디어 아트를 직접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체험형 전시가 주를 이룬다.

셀피에서 배경과 조명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이유로 미술관은 최적의 셀피 장소로 각광받는 듯했다. 미술관에 있는 셀피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별은 여성이 81%, 연령대는 30대가 40.7%, 20대가 41.0%를 차지한다고 한다. 실제로 미술관에 갔을 때도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 20대와 30대 관람





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다. 사비나 미술관은 이를 반영해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술 작품과 공존을 꾀하는 것 같았다. 현대인들이 접하고 있는 셀피 현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통해 온라인상에 펼쳐진 가상세계에서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현실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욕망을 표출하는 기회를 주는 전시였다.

흥미로운 설문조사와 다채로운 작품, 영상 등 셀피 자료는 공통으로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았다. 보통의 전시라고 하면 관람객의 참여로 이루어져 작품이 완성된다기보다는 관람하는 선에서 그쳤는데 이 전시는 3D 스캐너나 3D프린터 등의 장비들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또는 역동적으로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접근이 가장 신선했다.

셀피 현상은 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사소하고 개인적이지만 적극적인 자기표현 행위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사회현상이 큰 파급력을 낳고 있다. 가상의 세계에서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고립시키는 현대인의 초상을 발견함으로써 1인 미디어 시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인의 욕망이 셀피 현상을 통해 표출되는 것은 사적 영역의 단일화된 시각에서 벗어나 현상 전체를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공감해야 할 것이다.

#셀피selfie – 나를 찍는 사람들
참여작가 :
강은구, 고상우, 김가람, 김인숙X벤아민 라베,
김창겸, 신남전기, 아말리아 울만,
업셋프레스 안지미X이부록, 한경우

슈퍼배드3

프리즌 브레이커

글·**조아현(니트패션디자인과 17학번)**

미니언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개봉 전부터 이 영화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슈퍼배드3'(7월 26일 개봉)가 이전 시리즈의 아성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북미 개봉 2주차 전 세계 56개국 박스오피스 오프닝 1위, 2017년 애니메이션 북미 최고 오프닝 등 놀라운 기록과 함께 국내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슈퍼배드3'는 쌍둥이 동생 드루의 존재로 말미암아 슈퍼배드의 운명을 깨닫게 된 그루의 본업복귀 프로젝트를 주축으로 흘러간다. 같은 얼굴, 다른 스펙을 가진 그루&드루 형제 조합은 시리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루에겐 없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금발 머리를 휘날리며 등장한 드루는 어설프기 짝이 없는 악당 지망생이지만 그루의 도움으로 조금씩 악당으로 성장해나간다. 훗날 '슈퍼배드' 시리즈에서 그가 언젠가 뛰어난 활약을 할 것 같다는 추측이 생겨나기도 한다.

한편 드루의 목소리는 기존 그루 캐릭터의 목소리 연기를 맡았던 스티븐 카렐이 동시에 맡아 눈길을 모은다. 특히 그루&드루 쌍둥이가 가족들 앞에서 서로인척 장난치며 박장대소하는 장면에선 스티븐 카렐의 재치 있는 목소리 연기가 더욱 빛을 발한다. 영화는 악당 은퇴를 선언한 그루를 떠나 스스로 악당이 되기를 결심한 미니언즈의 험난한 모험도 그려나간다. 어떤 환경에서도 찰떡같이 적응하고 모험을 멈추지 않는 미니언즈가 교도소 접수에 나서는 장면들은 관객들에게 박장대소를 안겨준다. 생각 외로 캐릭터들의 명성에 비해 미니언즈의 활약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영화 중간중간 등장하며 관객들이 지루할 틈이 없게끔 영화를 꽉 채워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쌍둥이 동생 드루의 존재를 알게 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 그루는 악당이 되고 싶어 하는 동생과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루의 세 딸을 납치한 악당을 해치우기 위해 다시 힘을 합하며 뜨거운 형제애를 되찾는다. 그루와 결혼해 귀여운 딸이 세 명이나 생겨난 루시 또한 엄마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결국, 사랑이란 공통점으로 똘똘 뭉친 등장인물들이 비로소 완전한 가족을 구성하며 서로를 껴안는 장면은 이번 시리즈도 유머와 감동을 모두 잡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가족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영화 안에서 섬세하게 잘 표현되었다. 연령대, 남녀 구별 없이 재미있게 볼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니언즈를 보기 위해서 영화를 예매했다면 조금 실망을 할 수 있다.







픽사PIXAR, 30주년간의 여정

글·**윤상아(문예창작과 17학번)**

10대를 거쳐 20대로 나아가는 중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듬는 여정은 언제나 새롭고 흥미롭다. 가끔은 지나간 추억을 그리워하며 감정에 젖어 들기도 한다. 우리는 어린 시절 보았던 애니메이션으로 그 추억 속에 빠지곤 한다. 이를 나는 이 전시회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다. 여러 애니메이션 회사들 가운데 단연 최고라 손꼽을 수 있는 픽사의 애니메이션 30주년 특별 전시회는 픽사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로 나아가는 아날로그. 전시회는 그동안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캐릭터들이 그려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물 중 하나는 여러 인형을 둥글게 세워두고 빠르게 돌림으로서 하나의 애니메이션처럼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소하게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장면이 뇌리에 박혀 떠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작품들은 애니메이션마다 나뉘어 있어서 각 캐릭터의 초기 디자인과 여러 디자인, 만들어지는 과정들, 더불어 픽사의 초기 애니메이션과 각 애니의 초반 모습들을 엿볼 수 있게 되어있었다.

공개되지 않은 픽사의 초기 애니메이션들을 본 것은 하나의 즐거움이었다고 생각한다. 초창기답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픽사의 모든 애니메이션의 분위기를 닮았다. 지금의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었다.

픽사의 많은 애니메이션 중 먼저 눈에 띈 것은 '라따뚜'이었다. '라따뚜이'는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를 꿈꾸는 생쥐 레미와 견습생 링귀니의 좌충우돌 성장기



를 담고 있다. 대중성이 짙은 픽사의 애니메이션들은 무엇들이라도 자세히는 아니어도 대강의 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초반 부분을 짤막하게 보여주고 몇 장면들을 애니가 되기 전 이미지로 보여주는데 마치 극 안에 들어간 것 같이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픽사의 여러 애니메이션 중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는 '업'이다. '업'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한다. 초반 5분만으로 모든 걸 압도하며 빨려들게 한다. 주인공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여주며 목표인 모험을 찾는 인생을 보여주는 영화. 대사 하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있다. 이 영화 특유의 청량한 색감과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전시회에서 다시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직접 보면서 내용을 되살리게 하면서 더 새롭게 다가왔다.

픽사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다고 생각한다. 여기 가장 뚜렷한 개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나온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몬스터 주식회사' - 몬스터 대학교의 몬스터 시리즈. 주인공 각자의 개성을 뚜렷하게 드러낸 그림체들과 그저 조연에 불과했던 캐릭터들까지 다시 볼 수 있다. 여기에 각자 초기디자인들을 덧붙여 볼 수 있다는 것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였다.

어쩌면 가장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많은 여운을 남겼던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토이스토리'는 애니메이션의 과정과 캐릭터들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시리즈를 가진 애니메이션답게 양도 꽤나 많은 편이었는데 각 캐릭터들의 특성이 잘 드러남과 동시에 '토이스토리'를 보던 그때의 나로 돌아간 것 같은 감정을 갖게 했다. 특히나 '토이스토리 3'는 앤디와 카우보이의 이별을 덤덤하게 표현해 내 더 큰 공감을 얻었었는데 그때의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다.

픽사의 전시회는 보는 내내 바쁘게 지내느라 놓친 동심을 되돌려주는 것 같았다. 전시회를 보고 나온 후 그저 즐겁게 애니메이션을 보던 어린 시절의 나와 이제 그 안의 주인공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금의 내가 공존하며 많은 생각을 들게 했다. 그때 전시물들을 보며 느꼈던 감정을 사진으로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내게 큰 영향을 끼쳤다. 가장 놀랍게 생각했던 것은 많은 애니메이션 중 단 하나의 캐릭터도, 내용도 비슷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매번 색다르게 만들어 낸 애니들은 각각 보는 재미를 느끼게 했고, 아직도 많은 사람이 픽사의 애니메이션을 찾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었다.





Memory

뮤지컬 캣츠

글·김은진(문예창작과 16학번)

그들에게는 세 가지의 이름이 있음을 밝힌다.
첫 번째 이름은 주인들이 지어준 이름,
두 번째는 고양이 개성에 맞는 독특한 이름,
마지막으로는 인간들이 모르는 고양이들만의 비밀스러운 이름이다.

<캣츠>는 1981년 웨스트엔드 초연 이후 2002년까지 오랫동안 많은 관람객에게 사랑을 받은 공연이다. 그런 <캣츠>가 12년 만에 리바이벌되어 한국에 찾아왔다. 파리와 시드니, 브로드웨이 등을 거쳐 아시아 중 한국에서 최초로 공연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공연되고 있다. <캣츠>는 T.S. 엘리어트의 시집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Old Possum's Book of Practical Cats)'에 나온 각 고양이의 성격을 뽑아 무대화시켰으며, 다양한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이다. 특별히 어떤 스토리라인으로 진행되지는 않는 대신 여러 고양이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하나씩 보여준다.



1막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 고양이들만의 특별한 축제가 열리는 날이다. 젤리클 고양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신들이 젤리클 고양이임을 경축하는 자리이다. 멍거스트랩이 젤리클 고양이들은 일 년에 한 번씩 만나 축제를 연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들은 현명한 올드 듀터로노미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가 한 고양이를 선택해 천국으로 보내 새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멍거스트랩이 하루종일 잠을 자는 제니애니닷을 소개한다. 그녀는 쥐들에게 음악과 뜨개질을 가르치며 바퀴벌레들을 쫓아다닌다.

두 번째 고양이는 럼 텀 터거로, 암고양이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은 바람둥이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고양이들과 축제를 열고 있을 무렵 그리자벨라가 나타난다. 그녀도 젤리클 고양이 중 하나이다. 하지만 수년 전에 바깥세상으로 나갔다. 한때는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누추하고 낡은 모습이다. 모두 그녀를 피하기만 한다.



다음으로 뚱뚱한 버스토퍼 존스는 언제나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된 하얀 각반을 차고 영국 선술집이나 클럽에서 먹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며 고양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맥캐버티가 어디선가 큰 소란을 피우자, 다른 고양이들이 겁에 질려 숨을 곳을 찾는다. 고요해지자, 웃음소리가 새어 나온다. 언제나 같이 사는 가족과 문제를 일으키는 고양이 커플, 몽고제리와 럼블티저가 들어와 한바탕 장난을 친다.

올드 듀터로노미가 도착하자마자 고양이들은 다시 모인다. 멍거스트랩이 올드 듀터로노미를 위해 오락거리를 마련한다. 고양이들은 '피크와 폴리클 개들의 무시무시한 전투'라고 이름을 붙인 쇼로 진행을 한다. 진행 도중 맥캐버티에 의해 고양이들이 달아난다. 올드 듀터로노미가 그들을 달래서 다시 모인다. 모든 고양이가 모여 축하의 춤을 추는 일 년에 한 번 있는 큰 댄스파티가 열린다. 그리자벨라도 나타나지만 다가가지 못한다. 파티를 즐기고 있는 고양이들이 그녀를 경멸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하며 '메모리'라는 노래를 부른다.

2막

극장 고양이 거스가 등장한다. 거스의 원래 이름은 아스파라거스이지만 발음이 복잡해서 그냥 거스라고 부른다. 거스는 한때 훌륭했던 배우들과 같이 일을 했으나 지금은 몸이 아프고, 나이 많은 배우이다. '그로울타이거의 마지막 접전'이라는 연극으로 거스의 상상 장면이 이어진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기차 고양이 스킴블샹스가 자신을 소개한다. 모든 고양이에게 친근한 아저씨 같은 고

Tonight is the one special night each year
when the tribe of Jellicle Cats reunites to celebrate who they are.
오늘 밤은 매년 젤리클 고양이들이 모여
그들만의 축제를 여는 특별한 밤이다

양이지만 기차에만 올라가면 모든 세부 상황까지 완벽하도록 만드는 완벽주의자이다. 세 번째로 분위기를 망치던 맥캐버티가 나타난다, 맥캐버티는 악행을 일삼는 악의 중심으로 자신의 부하인 심복을 시켜, 올드 듀터로노미를 어디론가 납치해 간다. 맥캐버티가 올드 듀터로노미로 변장하고 나타나지만, 곧 들통나고 멍거스트랩을 비롯한 수컷 고양이와 싸운다. 여러 고양이와 싸우다가 지친 맥캐버티가 모든 전등을 나가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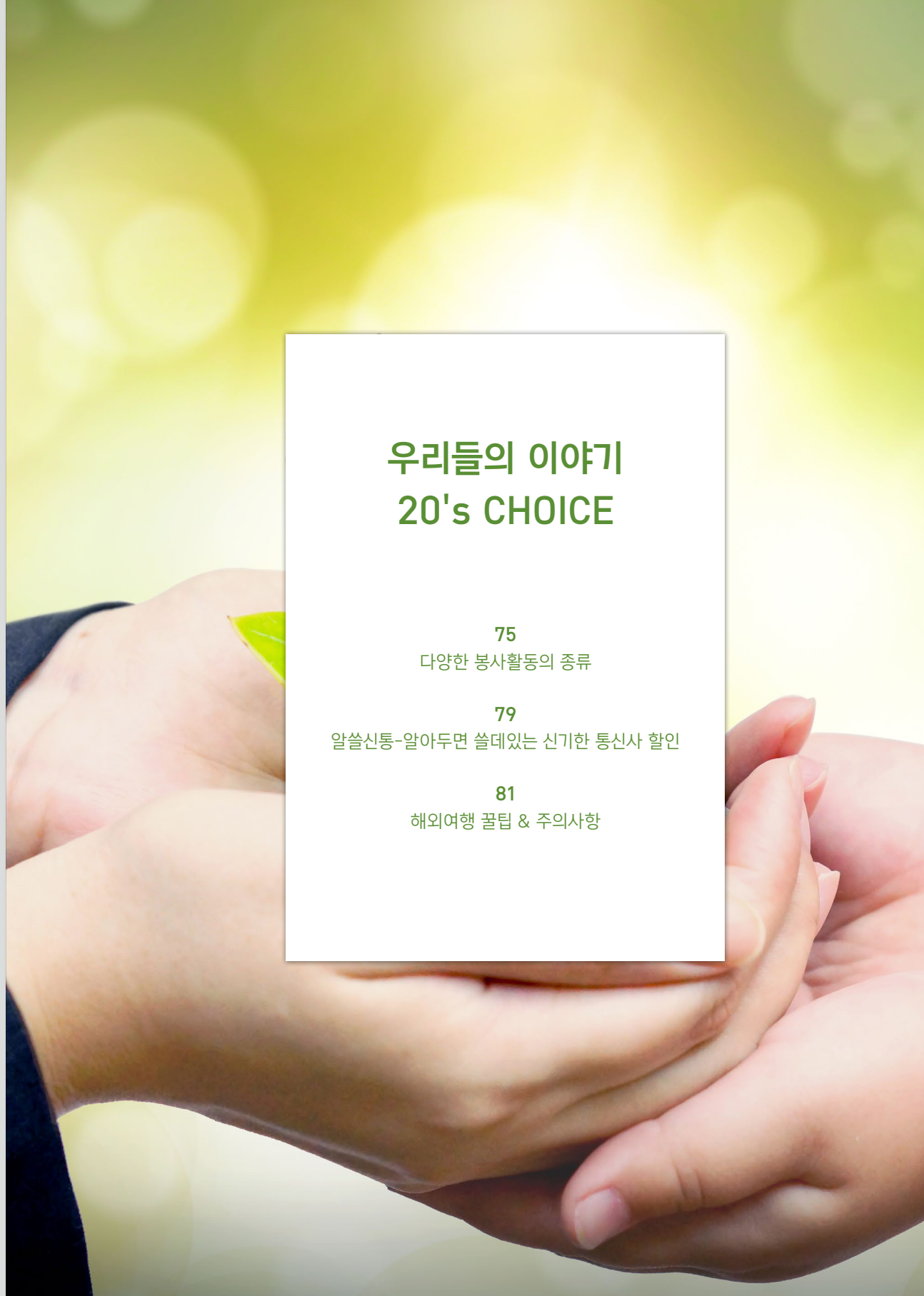
젤리클 고양이들은 어둠 속에 남게 된다. 럼 텀 터거가 마법을 하는 미스터 미스토펠리스에게 부탁해 올드 듀터로노미를 되돌려 놓는다. 마침내 올드 듀터로노미가 젤리클 고양이를 선발하려는 순간, 그리자벨라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는 '메모리'를 부르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그녀에게 등을 돌렸던 다른 고양이들도 그녀를 다시 받아들인다.

마침내 올드 듀터로노미는 그리자벨라를 고양이들의 천국, '헤비사이드레이어'로 올라가 다시 태어날 고양이로 선택한다. 올드 듀터로노미는 그녀를 마법의 타이어에 태워 하늘로 승천시키고, 일 년 중 단 하룻밤만의 고양이의 축제는 막을 내렸다.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공연을 시작하여 많은 기대감을 안고 관람을 하였다. 하지만 다른 뮤지컬과 달리 <캣츠>는 기승전결이 없다. 탄탄한 내용보다 각기 다른 이미지와 성격을 지닌 고양이들의 일상을 통하여 인간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내용보다 소개를 중요시 여겨 캐릭터를 소개할 때마다 고양이의 성격에 맞게 여러 가지 댄스를 보여주었던 것을 느꼈다. 고양이다운 귀여운 몸동작과 발레, 탭댄스, 재즈댄스, 아크로바트, 현대무용 등 다양한 춤으로 청중의 눈을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옛날에 비해 캐릭터도 추가되었고 조금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탄력있는 고양이의 소개가 필요하다고 느껴 아쉬움이 남았다.

관람하면서 고양이를 소개할 때 다른 고양이들은 에피소드만 들어도 금방 이해가 갔지만, 그리자벨라는 어떻게 하다가 비운의 여인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나오지 않아 부연설명이 아쉬웠다. 사연이 있고 사람처럼 대해달라는 고양이들에게 에피소드를 추가했으면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재미있게 시작하여 지루할 틈이 없었다. 12년 만에 찾아온 만큼 많은 청중이 고양이들의 매력에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의 이야기
20's CHOICE

75
다양한 봉사활동의 종류

79
알쓸신통-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통신사 할인

81
해외여행 꿀팁 & 주의사항



다양한 봉사활동의 종류

글·한민주(컴퓨터정보과 17학번)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초·중·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봉사활동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단순한 스펙으로 여겨 대학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본래의 의미에서는 벗어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단순히 대학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고, 제 주변에는 형식적인 봉사활동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 가운데 약 80%는 봉사활동의 본래 의미에서는 변질된 목적으로 스펙을 쌓기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저 또한 학창시절에는 스펙과 봉사활동 확인서를 대가로 바라고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자신의 재능을 살린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 등의 사례를 접하며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했습니다. 본래 봉사활동에 담긴 의미는 '스스로 원해서 나라나 사회 또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행위' 즉,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돕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 이렇게 4개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가집니다. 보수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자유 의지인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을 느끼고 양심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거나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 힐링이 되는 기분을 느끼는 것과 같이 나름의 보상을 받는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관심과 재능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봉사

활동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의 종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대상과 활동을 기준으로 크게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로는 아동 관련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아동 관련 봉사활동에는 저소득층 또는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학습, 놀이지도, 간식 도우미 등 생활 보조 활동과 식량 차량 운행 등의 활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관련 봉사활동 사이트에는 네이버 해피빈, 무지개지역아동센터, 굿네이버스, 국제아동돕기연합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은 비행 청소년 상담지도나 공부방 학습지도, 네이버 해피빈, 문화 탐방 등 교육 및 사회활동과 청소 등 생활 보조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관련 봉사활동 사이트에는 청소년문화의집, 푸른꿈청소년상담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인 관련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 알려진 봉사활동의 형태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청소, 세탁, 시장 보기, 식사 준비 등 가사 봉사와 병원 동행, 수발, 약 복용 등의 간병 봉사 그리고 말벗, 상담, 정보 제공 등의 심리/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여 일상생활이나 신체, 건강상의 변화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관련 봉사활동 사이트에는 노인 자원봉사 포털, 서울 노인복지센터, 한국자원봉사지원협의회, 지역 노인 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활동보조, 배식 지원, 승하차 보조, 요금 수납 등이고 관련 사이트에는 지역 보건소, 보호 센터, 한국시각장애인아카데미,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터민이나 다문화 가정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관련 봉사활동은 주로 한국어, 영어 등의 언어 교육이나 통역 및 안내, 다문화 지원시설 행사 지원, 돌봄교실 학습지원 등 교육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관련 사이트에는 한국다문화연대, 아시아언어문화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다문화 넘어서 등이 있습니다.

활동 대상을 기준으로 봉사활동을 나누어봤지만, 활동 분야에 의해 봉사활동을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문화 관련 봉사활동에는 체육대회, 음악회, 수영, 피아노 반주, 마술, 국악공연, 노래 교실 등의 보조와 각종 축제 지원 등 자신의 특기나 취미를 활용하여 자원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구호 관련 봉사활동은 수지침 및 마사지, 치매 예방 서포터스, 물리치료, 각종 재해/재난 봉사활동, 영양 상담 등 재능을 살려 자신의 능력도 기르고 봉사활동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활동 대상과 활동 분야를 기준으로 전반적인 봉사활동의 종류를 나누어서 설명해봤다면, 이제 많은 학생이 활동하는 자원봉사에 대해 예시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이 실천하고 있는 대학생 봉사활동의 종류로는 헌혈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보이는 헌혈의 집이나 헌혈차를 통해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 많은 학생에게 알려진 봉사활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혈액원이나 거리의 헌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집단으로 헌혈할 단체는 적십자혈액원 또는 한마음혈액원에 연락하여 이동 채혈반의 파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혈예치제도가 시행되는 한국에서는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헌혈증서가 발급되고 헌혈자 또는 헌혈 증서를 양도받은 자에게 수혈이 필요한 경우 헌혈량에 해당하는 수혈을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무상(진료비 계산 시 수혈비용 중 건강보험 부담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면제)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헌혈 과정은 기증자 적합선별, 실제 헌혈, 회복 과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은 혈액 전체를 헌혈하는 '전혈 헌혈'과 전체의 혈액에서 혈장 혹은 혈소판을 분리해서 헌혈하는 '성분 헌혈' 모두에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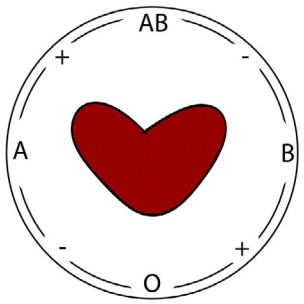
하지만 헌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혈 헌혈은 320ml과 400ml로 구분됩니다. 전자의 경우는 만 16세에서 69세의 나이의 조건, 남성 50kg 이상, 여성 45kg 이상의 몸무게의 조건, 후자의 경우는 만 17세에서 69세의 나이의 조건, 남녀 모두 50kg 이상의 몸무게의 조건, 그리고 전자와 후자 모두 혈액비중은 1.053이상(혈색소 12.5g/dL)이어야하고 65세 이상이라면 60세에서 64세 사이에 헌혈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요시간은 10분~15분 정도 소요되며 다음 헌혈은 2개월 후 같은 날짜부터 가능합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헌혈 전 검사가 시행되니 사전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성분 헌혈은 앞서 말한 전체 헌혈과 조건도 조금 다른데요, 혈장 성분 헌혈은 만 17세에서 69세, 혈소판 성분 헌혈과 혈소판 혈장 성분 헌혈은 만 17세에서 59세의 나이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65세 이상이라면 60세에서 64세 사이에 헌혈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 성분 헌혈 모두 몸무게는 남성 50kg 이상 여성 45kg 이상, 혈액 비중은 1.052 이상(혈색소 12.0g/dL)이어야 합니다. 혈장 성분 헌혈은 약 30분~40분 소요되고 혈소판, 혈소판 혈장 성분 헌혈은 약 60분~90분 소요되며 다음 헌혈 가능 일자는 2주 후 같은 요일부터 가능합니다.

헌혈 시 주의 사항에는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헌혈 중이나 헌혈 후 채혈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규칙적으로 호흡하면서 발목 근처에서 다리를 꼰 채 다리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혈 부위를 10분 이상 누르고 있어야 하며 문지르면 멍이 드니 조심해야 합니다. 헌혈 부위에 붙인 반창고는 최소 4시간 이상 붙여야 하며 헌혈 당일에는 과격한 신체 움직임을



피하고 헌혈 부위에서 피가 나면 팔을 가슴보다 높게 올린 상태에서 지혈될 때까지 해당 부위를 눌러야 하고 헌혈한 날은 평소보다 물을 3~4잔 더 마셔 손실된 혈액량 보충에 도움을 주고 수분 손실이 많은 사우나나 찜질은 피하며 헌혈 후 1시간 이내에는 현기증이나 구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흡연을 피해야 합니다. 헌혈 후 어지럽거나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바닥에 앉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잠시 쉬거나 다리를 들어 올린 채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 헌혈이지만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혈액은 부족합니다. 자신의 피로 누군가의 생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더 많은 사람이 헌혈에 참여해 누군가의 구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World Blood Donor Day

다음으로는 연예인들도 많이 실천하기도 했던 연탄 나눔 봉사인데요,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취약계층에게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입니다. 보통의 연탄 배달에서는 지게에 연탄을 싣고 배달하고 지게를 이용해 옮겨진 연탄을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옷에 연탄이 묻기 때문에 버려도 되는 옷 또는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지게를 진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양의 연탄을 싣고 구불구불 좁은 골목길을 오르락내리락하느라 조금 힘이 들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 분들이 가정에 있는 연탄보일러를 오래 사용하게 됨으로써 고장 및 노후화가 진행되어 겨울에 연탄 지원을 받아도 방을 따뜻하게 난방을 할 수 없어 노후된 연탄보일러를 새로운 연탄보일러로 교체하여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봉사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야외에 나가지 않고 하는 봉사활동이라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봉사활동인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입니다. 주로 구호활동을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인데 구호 단체에 신청하면 모자를 떠서 보낼 수 있는 재료가 우편으로 배달되어 오고 내용물 안에는 신생아 모자를 뜨는 방법이 몇 가지 소개되어 있답니다. 체온 조절과 보온이 필요한 신생아를 위해 모자를 선물해서 신생아, 조산아들이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모자를 뜨고 후원인에게 따뜻한 편지도 담아 보낼 수 있어 손재주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봉사활동 몇 가지를 소개해봤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봉사활동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즐거움과 뿌듯함으로 마무리하는 봉사활동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통신사 할인

알쓸신통

글·이유빈(문예창작과 16학번)

통신사에도 포인트가 있다!
모르고 모아놓은 포인트 알뜰하게 써보자!

warning

모든 통신사 할인은 해당 통신사 앱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며 VIP 승급에 따라 할인 폭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꼭 앱을 깔아서 자신의 등급을 확인하여 이에 맞춰서 사용해보자!

베이커리

SK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파리크라상, 브래댄코 10~15% 할인
LG U+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뚜레쥬르 1000원당 100원 할인
KT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1000원당 100원 할인

편의점

SK CU,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1000원당 50원 할인
LG U+ GS25 10% 할인
KT GS25, 미니스톱, 위드미 10% 할인

영화관

SK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VIP 연 6회 무료 또는 3D 영화 5000원 할인
LG U+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1000~3000원 할인
KT CGV, 롯네시네마, 메가박스 VIP 영화 예매 무료

카페

SK 할리스커피, 코코부르니 등 10% 할인
LG U+ 탐앤탐스 20~30% 할인, 스타벅스, 드롭탑 사이즈업 무료
KT 스타벅스, 커피빈 주 1회 사이즈업

레스토랑

SK 빕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T.G.I프라이데이 등 5~20% 할인
LG U+ 켈리포니아키친 20% 할인
KT 아웃백, 빕스, 불고기브라더스 등 10~30% 할인

피자

SK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파파존스 최대 30% 할인, 피자헛 15% 할인
LG U+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20% 할인, 파파존스피자 30% 할인
KT 도미노피자 20~40% 할인, 미스터피자 20% 할인, 파파존스피자 30% 할인, 피자헛 15% 할인

놀이공원

SK 롯데월드(T맴버십 VIP~GOLD 본인 + 동반1인) 20800원, 서울랜드 30% 할인
LG U+ 서울랜드 40% 할인 (VIP회원 최대 50% 할인)
KT 롯데월드(올레클럽 회원 + 동반1인) 15000원, 서울랜드 30% 할인

음악

SK 멜론 스트리밍 서비스 30% 할인, 다운로드 50% 할인
KT 올레 뮤직 30% 할인, 지니 50% 할인



해외여행 꿀팁& 주의사항

글·조아현(니트패션디자인과 17학번)

방학이 되면 외국으로 여행 가는 학생들이 급증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꿀팁을 전하려고 한다.

우버 택시 이용법

해외에 나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가장 좋지만 편하게 가고 싶거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 택시를 타게 될 수 있다. 그때 우버 택시를 이용한다면 현지의 택시 요금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버 택시는 승객과 운송 차량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로 목적지를 적고 현재 위치를 파악하여 주변의 우버 택시들을 연결하는 시스템이라 택시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택시를 부르기 전에 결제 방법은 카드로 등록을 해야 드라이버를 부를 수가 있다. 택시를 운전하는 드라이버 사진과 차 기종, 번호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 해외에서 택시를 타는 게 무서운 분들은 우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친절한 현지 드라이버들이 많아 맛집, 여행지에 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우버 택시의 사용방법

우버 택시 어플을 다운받아서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 수단을 입력한다. 그리고 자신이 출발하는 곳에서 목적지명을 적으면 금액을 알 수 있다.

우버 택시의 장점

- 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서 현금이 필요 없다.
- 출발지에서 어디로 가는지 미리 지정하고 알아서 다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택시 바가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앱으로 어디서 타서 어디까지 가는지 정하면 되기에 우버기사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우버 택시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초대코드를 통해 가입한다면 15달러를 받을 수 있고 15달러 이내의 운행비용은 공짜로 탈 수 있다.

나라별 주의해야 할 손 제스처

해외여행을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별문제 되지 않는 행동이 그 나라에서는 불쾌한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기 전 이런 민감한 행동들은 검색을 해보고 가는 것이 좋다. 영국, 호주 등에서 손등이 보이는 V는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므로 현지인에게 보여줄 경우 싸움이 날 수 있다. 그리스, 터키 일부 지역에서는 손바닥이 보이는 V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한다. 인사나 하이파이브를 할 때 취하는 포즈인 손바닥 전체를 보여주며 '나!', '파르타!'라고 외친다면 그리스에서는 욕을 하는 행위라고 한다. OK 표시인 동그라미를 손동작으로 하면 프랑스에서는 '형편없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뜻이고 브라질에서는 성적 모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 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주의해야 할 행동들이 있다. 해외여행을 하기 전 한 번 검색해보고 가는 것도 여행을 가는 나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짐 싸기 팁

해외여행을 갈 때 면세점과 현지에 가서 많은 물건을 사야 하는데 수화물 용량은 정해져 있다. 용량이 초과되면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짐을 싸는 것이 훨씬 좋다. 장기여행이라면 화장품, 샴푸 등은 현지에서 사거나 집에서 사용하는 큰 통을 들고 가는 것이 맞지만 여행 기간이 짧다면 화장품가게에서 받은 샘플을 이용하거나 렌즈 케이스에 사용할 만큼만 덜어서 가면 부피를 덜 차지하고 사용하기 편하다. 빨대 안에 화장품을 넣어 위, 아래를 고대기로 눌러주는 방법도 있다. 만약 뚜껑이 있는 로션을 들고 갈 경우 내용물이 샐 수가 있어 뚜껑을 닫기 전 랩으로 한 차례 감싼 뒤 닫아주면 새지 않는다. 미리 하루 동안 입을 옷과 속옷 양말 등은 지퍼백에 각각 넣어 보관한다면 찾을 때 편리하다. 바지는 접는 것보다 돌돌 말아서 보관하고 샤워캡으로 신발 바닥 부분을 커버해주면 깔끔하다.

환전 싸게 하기

1. 사이버 환전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기다리지 않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사이버 환전을 한 뒤 지정한 은행에 가서 직접 외화를 수령하기만 하면 된다. 시간과 수수료를 절약하고 여행시즌인 휴가철, 명절 등 각 은행별 다양한 수수료 우대 할인 이벤트를 통해 최대 90%까



지 받을 수 있어 꼼꼼하게 확인 후 환전하면 된다.

2. 서울역 환전센터

일반 시중은행보다 환율 우대가 높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환전한다. 그런데 대기시간이 기본 2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역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기거나 가깝게 사는 이들이 이용하면 편하다.

3. 외화 동전 구매 or 달러로 환전

외화 동전은 지폐보다 매매 기준율 대비 크게는 7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바꿀 수 있어 유럽여행 또는 일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은행에 가서 해당 외화 동전이 있는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동전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

원화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환율의 화폐들은(태국 바트, 베트남 동, 인도 루피 등)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화폐이다. 어느 나라를 가도 달러를 가장 높게 쳐주기 때문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현지에서 환전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환전한 돈을 다 사용한 경우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해외에서 결제할 때 수수료가 나가는데, 재환전 수수료보다 저렴하므로 돈이 부족한 경우 카드 사용도 추천한다.

여행자 보험 똑똑히 고르기

해외여행 중에는 언제 어디서라도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 가입은 필수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고 회사마다 보험 내용도 다르므로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보고 선택을 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변경되면서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현재 여행자 보험이 유일하고 여행자 보험을 제외한 타 의료실비상품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해외에서 사고가 나서 국내에서 치료 목적으로 입원하게 된다면 이제는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줄게 된다. 그리고 카메라나 스마트폰같이 고가의 귀중품을 분실 했다면 현지에서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고 해외여행자 보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험 신청을 깜빡한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여권을 도난당해서 재발급을 한다면 그 비용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다양한 부분들도 보상이 가능하니 여행자 보험을 꼭 신청하자.



인터뷰

86
문예창작과 정용준 교수

89
일본어통번역과 이병만 교수

92
통상중국어과 성세실리아 교수

"끝내주는
글을 써주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문예창작과 정용준 교수님

글·**윤상아(문예창작과 17학번)**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소설을 쓰기 전 소설을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소설은 좋은거구나' '멋진거구나'에서 시작해 '근사하고 아름다운거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가다 '그렇다면 나도 써보고싶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죠. 때마침 전공에 대한 회의감이 들던 중 학교에 문예창작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순전히 호기심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첫 수업 때 완전히 매료되었죠. 아, 세상엔 소설을 읽고 쓰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나도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이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그 마음을 시작으로 소설을 쓰게 되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설 중 가장 애착가는 작품은 어떤 것인가요?

뻔한 소리 같겠지만 다 애착이 갑니다. 독자에겐 같은 작가의 소설들이 비슷해보일지 몰라도 작가에겐 다 다른 소설이고 다른 추억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내가 겪은 것이고 그 경험은 소설을 쓰면서 더 강하고 의미 있게 되었죠. 그런 의미로 제게 소설은 언어의 옷을 입어 다시 태어난 기억 같은 것입니다. 물론 기억마다 각각 다르게 감각되는 것은 있죠. 어떤 소설은 아름답게 어떤 소설은 끔찍하게 어떤 소설은 슬프게 어떤 소설은 쓸쓸하게..... 다 애착이 갑니다.



한양여대 교수가 되신 계기가 궁금해요.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수업을 해줄 수 있겠냐는 전화를 받았고 며칠 고민 끝에 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수업을 하는 입장에선 가르치고 알려주는 교수나 선생의 마인드라기보다 글을 쓰고 글을 읽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는 단순하고 가벼운 마음이 있습니다.(교수라는 말은 정말 간지럽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기억에 남는 학생들 너무 많죠. 학생들이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학생들이 쓴 글이 기억이 남는다고 해야겠네요. 수업을 하다보면 학생에 대해 알아가는 것보다 그가 쓴 글에 대해 알아가게 되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고 아름답고 특이하고 기발한 글들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어떤 면으론 수업을 진행한다는 명분으로 멋진 독서를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아직 완전히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생생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꽉 차 있는 날것의 글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요. 작가의 입장에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늘 자극이 되는 경험입니다.

교수님께서 소설을 쓰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어디서 작품의 발상을 잡고 어떻게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지 등에 대해서요!

그 이야기는 수업하는 중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말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설마다 다 다르고 정확히 '방식'이랄 게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기에 이 말 저 말 하면서 설명해야 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으로 딱 떨어지게 말하긴 어렵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으신가요?

한 학기 수업을 했을 뿐이니까 기억에 남는 수업이라 함은 1학기에 했던 수업이 되겠죠. 잠깐 기억을 더듬어봤는데 바로 웃음이 나네요. 학생들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전 매 시간이 즐겁고 떨렸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든지 다 흡수해버리겠다는 눈동자와 반대로 무슨 말 해봐도 안 들린다는 멍한 눈동자 사이에서 전 늘 고민을 했으니까요. 제가 인상을 받은 것은 감정입니다. 수업에서 느껴졌던 어떤 감정. 분위기. 생생했고 탄성이 넘쳤던 것 같아요.



한양여대 문창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누구보다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욕심. 실제로 누구보다 글을 잘 쓰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오만. 그리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더 많이 읽고 쓰고 싶다는 모종의 조급함 같은 것이 보였는데요. 그것들이 바로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장점보다는 어려움과 힘듬으로 감각될 것입니다. 그런 기분이 들 때 '아, 이것은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설을 쓰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소설은 무엇인가요?

지금 쓰고 있는 소설입니다. 늘 그런 기분을 반복적으로 겪지만 어쩐지 이 소설을 완성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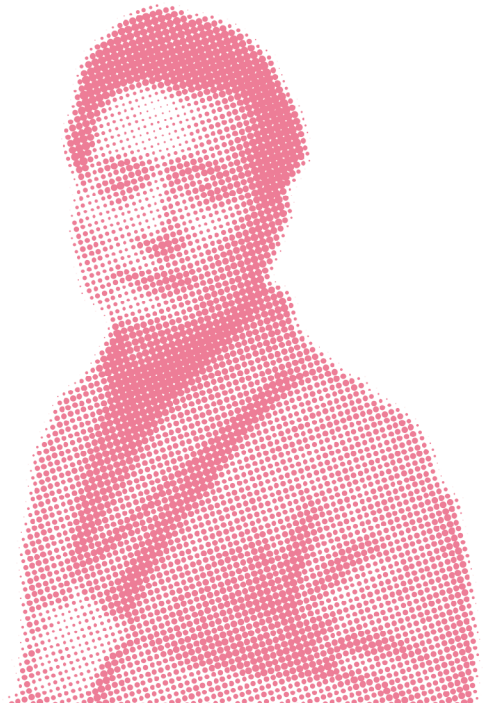
교수님의 추천도서는 무엇인가요?

음... 책 추천은 너무 어렵습니다. 다 말하기도 어렵고 추천해주는 사람에게 딱 맞는 소설을 고르기도 힘드니까요. 그래도 3편만 말해본다면. 대학생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으론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 허먼멜빌의 <모비딕> 그리고 밀란쿤데라의 <소설의 기술>입니다.

앞으로 도전해나갈 한양여대 학우들에게 조언 부탁드려요.

열심히 해야겠죠. 읽기도 열심히 쓰기도 열심히. 그러나 무엇보다 좋아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열정은 노력하고 애쓰는 열정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사랑에 가까운 감정이니까요. 마냥 좋아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감정을 계속 키워가고 지켜가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데이트하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때론 참고 때론 말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물리적인 노력과 감정을 전하고 그냥 믿어지게 만드는 정서적인 노력 둘 모두를 문학이라는 대상에게 줘야 합니다.

"一期一會 지금 차를 마시는
당신과 나의 만남은
평생의 단 한번, 그러나
새로운 만남이 있어
모든 만남은 소중하다."



일본어통번역과 이병만 교수님

글·**조아현(니트패션디자인과 17학번)**

교수님의 수업이 궁금해요.

1학년은 일본어 문법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 배우는 학생들이 많다보니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문법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은 비즈니스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이 많다보니 실무적인 일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 4학년은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대학원을 가기위해 필요한 일본어 개론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도 일본어를 배우지 않고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입시 담당선생님께서 앞으로 일본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배우게 되면 일을 할때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추천해주셔서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보니 입시담당선생님이 추천을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어만의 매력이 있나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외국어는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어를 독학하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공부법을 추천해 주세요.

일본어가 한국어와 어순이 같고 비슷한 점이 많아서 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외국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할 때 많이 듣고 단어를 외워야 합니다. 하나의 팁은 요즘 스마트폰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TV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는 사이트 등이 많기 때문에 지하철 등에서 시간 될 때마다 들으면 회화 실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단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화를 할 때는 조금 부족해도 많이 들으면서 습득하는것도 중요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근황을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서 국제협력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일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외국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어학당을 운영하고 한양대나 다른 대학에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양여대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게 일본이나 중국으로 보내주고 싱가폴이나 일본 등으로 해외취업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 일본통역과의 해외연수나 교환학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본에 5개 정도 대학 자매 대학이 있어 매년 많은 학생들이 6개월 정도 교환학생을 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금이나 장학금을 받고 매년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어학연수를 갔다 오는 기회도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많아서 성실하고 학교일에 적극적인 학생 등을 면접을 통해 목표의식이 뚜렷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만의 일본 여행 추천관광지가 궁금해요.

여행을 좋아해서 일본사람들도 다 가보지 못한 곳도 구석구석 다 가봐서 추천하는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사카, 도쿄 등 대도시도 물론 좋지만 히로시마, 센다이 등 중소 도시들을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외곽도시로 갈수록 생활패턴이 다르고 일본이지만 대도시와는 다른 일본만의 느낌이 있습니다. 모든 도시가 다 좋고 예쁘기 때문에 어느 도시가 좋다라는 것보다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도시보다는 외곽도시를 추천합니다.



일본 여행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여 주의할 점은 크게 없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차선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핸들이 왼쪽에 있지만 일본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반대이므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널 때 반대이므로 조심해야합니다. 여행을 가서 사고가 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알아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졸업생 중에 기억에 남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양여대에 처음 부임하여 왔을 때 가르친 학생 중 한 명이 조교를 걸쳐서 나고야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 기억에 남습니다. 일본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기억에 남고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지만 열심히 하여 곧 박사취득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가장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제자입니다.

교수님의 가슴에 새긴 일본어가 있나요?

一期一會(일기일회)는 녹차를 많이 마시는 일본의 다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사람과의 만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학생들이나 저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여 항상 차를 대접하고 같이 마십니다.

한양여대 학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요즘 꿈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다보니 노력을 안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앞날이 안보인다는 생각이 들지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미래가 찬란히 빛이 날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이왕 해야 할 일이라면 즐겁게"

통상중국어과 성세실리아 교수님

글·한민주(컴퓨터정보과17학번)

중국 관련 컨설팅을 오래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중국 사람들과 교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여?

더불어 교수님만의 팁이 있으신가요?

어떤 관계이든 간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하는 데에는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존중하고 소통하려는 태도는 일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는 수월한 일처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들과 교류할 때도 존중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이 조금 안통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배우려는 태도,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월한 일처리가 가능한 것은 중국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기본적인 소통의 자세 외에 팁이 하나 있다면 중국 사람들은 일처리 시 확인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더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가 가능해져요. 쉽게 말해 기한이 정해진 일이 있다면 그 준비 기한 내에는 정확한 일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디까지 일이 진행되었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요.

강의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강의할 때는 사무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도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포인트는 마음과 마음을 마주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북돋아주어 힘을 주는 것이 자신 있고 행복한 일이라고 느꼈고, 그래서인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며 강의의 주체와 객체를 나눈다기보다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강의했어요.

교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될 친구들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 업무를 맡아 강의를 하게 될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인내와 끈기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는 이끌어 낼 수 없어요. 완벽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오래 하다보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된다고 생각해요. 즉, 강의를 하면서 가르침과 동시에 배우기도하며 이를 위해서는 배움의 자세와 인내 그리고 끈기가 필요해요.

취업 후 회사 생활을 하며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개인이 하는 일보다는 팀을 이루어 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때 동료들과 조화를 이루고 최상의 팀워크를 이끌어내는 것은 일처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요.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최상의 팀워크를 이끌어낸다면 그 능력들이 합쳐져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용기와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생기고 그로인해 일이 꼬이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빠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어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고 자신도 발전하지 못한 채 회사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와 조언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회사생활에서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어릴 적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화가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고 문구점 주인이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공무원, 디자이너, 작가 등 꿈이 참 많았고 지금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죠.

다시 스무 살로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지금과 다른 일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스무 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해보고 싶은 일이 많지만 지금부터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현재하고 계시는 일 이외에 더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지금 꾸준히 책을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도전하는 중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을 위한 책도 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꿈과 도전에 대해 한양여대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학생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도전하는 만큼 내 것이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이왕 해야 할 일이라면 즐겁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논어 위정편에서 공자의 말 '사무사(思無邪_생각이 바르므로 사악함이 없음)'처럼 바른 생각으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양여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유 기고

96
영원히 재생하는 나라,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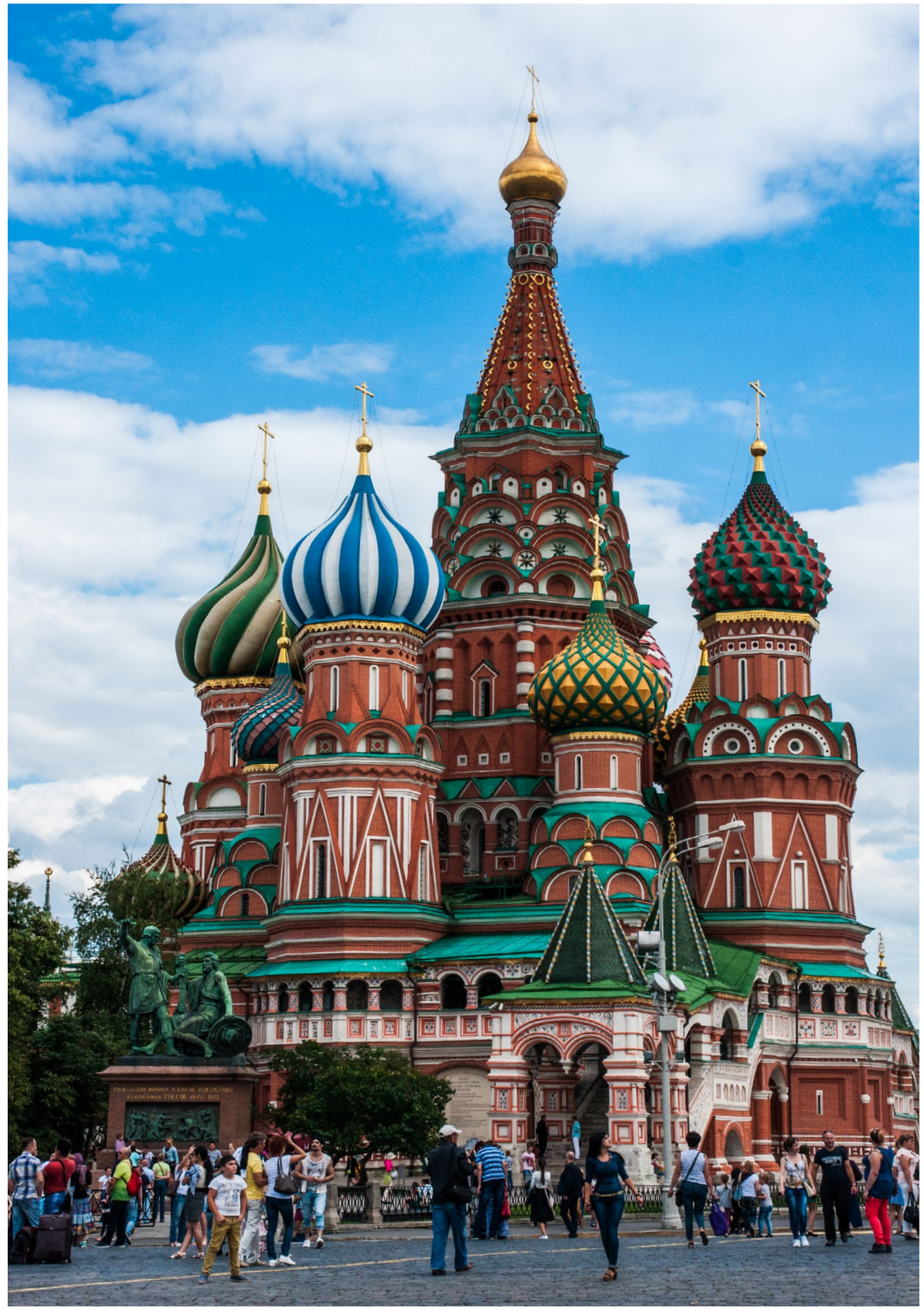
104
인성人性이 가득한 밥상

110
스무 살의 나에게

영원히 재생하는 나라, 러시아

글·사진. **한수지(강남대학교 건축공학과)**

평소에, 살아 있는 건축이라는 새로운 양식에 관심이 있던 나는 운이 좋게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챌린저 탐방'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져 재생 도시 건설의 가장 좋은 예로 손꼽히고 있는 러시아에 2주 동안 머물게 되었다. 나는 스스로의 발로 뛰어다니며, 그 나라의 문화, 환경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상을 파헤치고 아울러 큰 목적인 건축 답사를 하는 것은 건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자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해왔었다. 특별히 '글로벌 챌린저 탐방'을 지원한 이유는 평소에 흥미 있었던 주제와 맞물리는 러시아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문화 및 건축 답사를 통해 도시재생 발전방법을 새롭게 모색해보고자 하는 열망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번 답사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모티브로 개발과 보존의 공존 가능성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건축 활동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도시 재생'을 살펴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보존과 도시재생, 더불어 함께하는 예술

건축에 관심이 있거나 재생 시장을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최근 역사적 건축물 보존재생, 원 도심재생, 기성시가지 재생 등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1980년대 후반 대도시의 무분별한 외부확산을 방지하고 인구감소, 기존 산업의 쇠퇴,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등장한 개념이 도시재생이다. 낙후한 도시시설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것을 모두 허물고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러시아의 도시 재생 사업 성공 지역을 방문하여 도시 재생 후 지역 경제 발전, 시민들의 복지,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의 변화를 조사, 비교함으로써 향후, 작게는 서울시 크게는 세계로까지 도시정비의 새로운 방향을 점검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싶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실천적인 사업과 연계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개념 정립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속가능성의 기본 개념은 환경적 책무, 사회정의, 사회적 경제 등 세 가지인데, 국토부에서 만든 도시재생에는 오로지 경제적 측면만이 강조된 면이 없지 않다. 최근 인천 아트플랫폼, 군산 근대문화벨트화 사업 등 전국에서 도시재생에 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시재생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오해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전환 계획의 부재이다.

거의 모든 도시 재생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역 공동체와 예술과 문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 공동체에서 막상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이해는 폭넓지 못하다.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걸쳐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경우는 적었고 환경적 전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은 적은 것이 주의해야할 점이었다. 그로인해 이번 답사를 통해 지역과 문화 예술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지속가능성 재생 도시를 통해 환경-도시-예술의 관계에 대해 폭넓은 고민을 할 수 있었다.

멀지만 가까운 나라, 러시아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많은 역사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등으로 한민족의 역사가 왜곡되고 있는 이 시점에, 답사를 통해 역사의식 고취에 더 없이 좋은 교육장이었다. 그 나라의 건축가는 기술과 예술을 통합하고, 사회적 관계와 시스템을 돌아보며 계획한다. 따라서 역사가 깊은 건축물은 주변과 유기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실존의 장소이고 자연과 인위가 아우러진 환경 그 자체이다. 역사적 건축물은 아주 멀리서, 또는 아주 가까이서 바라보며 역사, 문화, 환경을 예리하게 살펴야 한다.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 바라볼 때의 느낌과 감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두를 느껴야만 그 건축물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다.

급변하는 국제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며 국제 문화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하고 재평가된 국가와 도시들의 사례 탐방을 통해 재생도시 환경 정책 분석 및 의식을 향상할 수 있었다. 러시아 문화 및 실생활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도시 재생 계획의 문제점을 미리 예상하고 대처 할 수 있다. 직접 부딪히는 건축물 답사를 통해 현장의 생동감을 담아낼 기회를 얻고, 러시아 건축의 창조적인 건축의식을 담아옴으로서 우리의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대한다.

어떻게 보면 답사라는 것은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필수이고 학생들은 사진으로 배우는 그 이상의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답사는 건축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한편으로는 창작의 학문인 건축을



바라보는 시야와 상상력을 넓힐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다. 하지만 건축에 대한 학습만이 그 목적은 아닐 것이다.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그 나라의 문화와 일상을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생각을 얻을 수 있었다.

건축으로 바라보는 시선

무제온 예술공원

고리키 공원, 무제온 예술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심각하게 방치 되어 있던 이곳의 부지가 모스크바의 공공 개방 공간과 공원, 문화 관련기관들로 인해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환경 개선과 다양한 사회적 활동, 공공 미술 프로그램, 민간 부문 협업 모델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는 공간으로 재탄생 하였다.

고리키 공원과 무제온 예술공원은 공공 공간 현대화 프로젝트로 모스크바 강을 따라 이어진 대규모 공공 공간으로 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조형물과 정원을 비롯해 전시 공간, 야외 공연 무대를 볼 수 있다. 가족, 연인, 친구 단위의 이용객들이 많았으며, 이곳의 현대화 작업은 지역 내 환경적,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도시재생 측면으로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판단했다.

이곳의 공공 공간 현대화 프로젝트는 도시 전체에 가장 이상적인 여가 활동 지수를 설립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여겨진다.

모스크바 지하철

나는 항상 기숙사에서 관광지로 이동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그중 모스크바 지하철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 1935년에 만들어진 러시아의 지하철은 지하 깊숙한 곳에 방공호를 목적으로 설치한 거대 지하 도시였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오래전에 지어진 것들인데도 약간의 보수공사 외에는 지금까지 거의 변한 게 없었다. 그 이유는 지하철이



전시에 대피소 역할도 겸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튼튼하고 깊게 지어졌기 때문이다.

모스크바의 유명 지하철 역인 야르바트스카야, 콤소몰스카야, 키예프스카야, 쁠로샤지 레볼류찌야, 마야콥스카야역 등을 다녀왔다. 각 역마다 가진 특색과 분위기가 다르며,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모스크바 지하철은 관광 명소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지하철역사로 뽑히기도 한 러시아의 지하철은 마치 중세시대의 궁전이나 박물관을 연상시킬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웠으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과거시절 대피소, 방공호로 사용되었던 장소를 지하철로, 관광 명소로 도시재생 활용한 것이지만 아름답고 웅장한 화려함 속에 숨은 독재시절의 어두움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스크바 국제 비즈니스 센터(MIBC)

러시아 중부의 상업 지구로 중앙 행정부 오크 르그의 Presnensky구역에 있는 제 3순환 도로 근처에 위치해 있다. 건설이 시작되기 전 이 지역은 오래된 석재 채석장이었으며, 대부분의 건물은 폐쇄되었거나 버려진 오래된 공장과 산업 단지였지만 MIBC는 비즈니스 활동, 생활 공간 및 엔터테인먼트를 하나의 단일 개발로 결합한 러시아 최초의 존으로 활용되고 있다.

방문 당시 현재까지 건설 중인 빌딩이 있었고, 조사결과 7개 건물이 건설 중이며 4개가 설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IBC의 비스따보츄나야(Выстабочная)역에 위치한 아피몰을 방문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뉴코아, 신세계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MIBC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유람선을 타고 MIBC를 전체적으로 관람하였다. 과거 버려진 산업단지에서 많은 이용객들 유치하는 동시에 모스크바의 랜드 마크로써 자리를 잡은 MIBC는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었다.



붉은 광장

러시아 대표적 건축 예술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 팀은 크렘린 궁전 성벽 아래 붉은 광장과 그 속 상크트바실리 대성당을 방문하였다.

그 밖에 광장 주위에는 레닌 묘, 국립역사박물관, 굼백화점 등이 위치 했다.

러시아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건축물들은 바로크양식의 조형물, 후기 고딕 양식의 탑, 바로크, 로코코 양식의 장식물들로 보아 당시 이탈리아 건축가들에 의해 르네상스 건축양식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서구적이면서 러시아적인 다양한 색채와 화려한 외관의 궁전, 탑, 관청 등 많은 건축물들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감상하였다.

개러지 뮤지엄

바흐메티예프 버스차고 건물은 2008년 리모델링하여 투박한 건물 외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공간은 거대한 개러지 뮤지엄으로 변했다.

이 개러지 뮤지엄의 오픈으로 재생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은 개러지 박물관의 디자인과 건축기술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곳에는 5개의 전시홀, 영화상영장, 서점과 카페가 들어가 있고 개관식에 맞춰 8개의 전시회가 동시에 준비되었다. 박물관 공간 이전 정책의 계승을 의미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야심의 증가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리고 있음을 느꼈다.

건축과인 나에게 이 뮤지엄은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연출부터 외부마감까지 매우 흥미로운 건축물이었으며, 현재 1층에서 진행한 모스크바 건축 전시회는 앞으로 건축하는데 있어 사용하는 재료나 디자인 등에 있어 영감 받을 수 있었다.

모스크바 탐방을 마치며

짧지만 길게 느껴진 2주 동안 모스크바는 내가 생각 했던 곳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었다. 2주 동안 모스크바에서 생활을 하며 느낀 건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하면서 답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좀 더 창조적이고 우수한 건축물들에 대한 탐구를 위해 밤을 새우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 창의성은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외부환경의 자극에 의해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 건축이라는 것도 지어진 건축물만을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물에 담긴 모든 것을 보고 느껴야 한다. 건축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건축물만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스스로 관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더 나아가 건축과 도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곳에 담긴 건축가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주변 환경을 고민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이해,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그곳 사람들의 일상을 모두 담는 것이 진정한 건축답사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성人性이 가득한 밥상

글. 식품영양과 허채옥 교수

문화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의해 원하든 원치 않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식생활문화 형성의 과정을 쫓아가 보려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우리의 대표적 밥상이 차려지는 것이었다. 밥과 된장찌개, 불고기와 상추쌈,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가 올라간 늘 익숙한 밥상, 그 밥상은 시대가 주는 필연적인 산물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헌상 기록도 부족하고, 음식이어서 유물로 남아 있을 수도 없는 우리 음식문화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서 간혹 발견되는 유물과 유적, 지리적으로 이웃하는 중국과 일본의 문헌 등에서 유추하여 조금씩 정체를 찾아내었던 그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밥상 위에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오랜 세월 변화를 강요했던 많은 일을 헤치고 우리 앞에 차려진 한국의 밥상은 우리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상차림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익숙한 우리의 밥상 위의 음식을 인성에 견주어 시사하는 점을 찾아볼까 해서다. 식품영양과 교수로 꽤 오랜 시간 한양여자대학에서 보내오면서 나누고 싶었던, 아쉬움 속에 미루어두었던 그런 얘기들이다. 오랜 시간 선생으로 살아왔기에 한 번 더 선생 노릇을 해보려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유구한 역사 속의 한국인의 밥상을 찾아가 보자.

신석기 중기 ~ 청동기시대

먼저 우리 먹거리에 쌀을 올려놓아 준 시대는 신석기 중기 ~ 청동기시대이다. 이 시대에 농업이 시작되면서 한국의 밥상에 주식으로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된 밥을 볼 수 있다. 식품을 계획해서 생산하게 되면서 인간은 한 곳에 정착하기에 이르렀고 공동체 생활, 가축화가 진행되는 시기로서 수렵, 어로, 채집을 병행하면서 점차 농사에 치중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이 시기에 벼가 중국을 통해 유입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에 전래한 벼의 품종은 대부분 자포니카(Japonica)형이며 지금 우리가 먹는 쌀의 시작, 곧 밥의 시작이었다.

철기 문화기 ~ 원삼국시대

다음 철기 문화기 ~ 원삼국시대는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낳은 시대이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고구려인은 장양(藏釀;발효음식)을 잘 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콩 발효식품, 즉 두장(豆醬)이 발생했으며 우리가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게 된 초석을 마련해 준다.

그에 더하여 술, 젓갈, 채소절임인 장아찌형 김치 등의 토착화된 발효음식이 발달하고, 고기 양념의 지혜로운 조리기술이 돋보이며 맥적이라고 하는 원조 불고기가 만들어진다. 채소절임의 형태의 김치는 후에 조선시대에 전래된 고추를 만나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붉은 색 김치로의 변신이 이루어진다.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주•부식의 분리에 따른 일상식의 기본적인 구조가 밥상 차림으로 정립된 단계이다. 쌀을 비롯한 곡물은 저장성이 좋아 연중비축이 가능하고 또 다른 곡물에 비해 비교적 산출량이 많으며, 식미감이 뛰어난 특성으로 쉽게 주식으로 정착되었다. 채소의 장기저장방법으로 개발된 김치와 콩을 이용한 장류, 풍부한 어패류의 보존을 위하여 개발된 젓갈 등의 발효음식이 주요 찬물이 되었으며, 주•부식 분리의 일상식이 형성되었다.

또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삼는 불교의 정신은 육식 섭취를 절제하고 사찰음식이 발달하는 식문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찰음식은 매우 다양한 곡물과 채소를 음식의 소재로 이용하게 되고, 콩 제품 및 생채나 쌈, 또 채소를 익혀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무치거나 볶아내는 나물(熟菜) 조리법이 발달하게 된다.

통일신라

삼국이 통일됨으로써 각각 그 지역의 풍토에 맞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온 음식이 상호 교류되어 통일신라는 귀족층을 중심으로 음식문화가 확대 발달한다. 고려 초기의 숭불환경과 권농정책 시행으로 나물, 침채류, 떡 등 곡물과 채소음식 문화가 고도로 발달하며, 차 문화와 함께 약과를 포함한 전통과자류도 발달하였다.

고려시대

고려 말부터는 중국에 의존하던 의서에서 탈피하여 향약(鄕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의서가 독자적으로 편찬되기 시작한다. 모든 먹거리의 재료가 약이 되고 이 땅에서 얻은 병은 그 지역에서 나는 산물로 치료가 가능하고 효과가 있다는 개념이 대두된다. 즉 밥이 보약이라는 개념으로 이 향약의 개념은 서민들의 경우 병이 나면 주



변에서 얻을 수 있는 일상 식품 재료로써 질병을 치유하는 민간 치료요법인 약식동원(藥食同源)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한국음식의 완성기라고 한다. 한국의 음식문화가 과학적으로 합리성을 갖추도록 정비되고, 음식법이나 상차림의 양식이 고유한 모습으로 재정비된 시기이다. 특히 고추의 보급은 우리의 식생활 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김치를 비롯한 많은 음식 조리 시에 고추를 이용함으로써 종전의 간장과 소금으로만 조미하던 담백한 맛의 조리에서 매운맛과 붉은색이 한데 어우러진 조화미(調和美)로서의 특징을 지니면서 식생활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김치로의 변신이 시작되었다.

음식에서 인성을 찾으려는 시도에 다소 무리가 따르기는 했지만, 이렇게 형성된 한국인의 밥상 위의 대표 식품인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를 중심으로 인성을 찾아 상위에 얹어 보려 한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도 하듯이 밥은 에너지의 공급원으로 하루 필요한 열량의 55~65%를 곡류에서 얻는다. '밥 드셨습니까'라고 인사하는 우리, 이때 밥은 주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 밥상의 주인으로 식사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예부터 밥을 복이라고 여겨 보름날에는 구운 김에 밥을 싸 먹으며 복을 기원하기도 했다. 그리고 저녁 늦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는 아이들이나 남편을 위해서 아랫목에, 이불 속에 묻어두던 따끈한 밥 한 그릇에는 우리들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어 그 밥은 평생 가슴에 안고 사는 밥이기도 하다. 그래서 밥은 단순한 한 끼 음식만이 아니며, 밥



상 역시 음식이 차려진 식탁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요즈음 YOLO라 하여 다른 이보다 나를 중심에 두는 라이프스타일이 유행한다고 한다. 쌀독의 쌀알처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제각각인 모습이 보이곤 한다.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신과 친구를 이중 잣대로 판단하면서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각자 주장이 강하여 조별 과제로 의견을 모으기가 힘들다고 호소한다. 적당치 않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를 위하여 목소리를 낮추어 대신 출석하기도 해서 신경이 쓰이곤 했는데, 요즈음은 출석 부르면서 대출 걱정은 아예 하지 않아도 된다.

밥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쌀알이 모였지만 물을 붓고 밥을 지으면 한 덩어리로 밥솥을 꽉 채운다. 밥은 우리에게 '하나로 뭉쳐 서로 배려하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야구선수 이○○은 홈런을 치고 뛰어 들어올 때 홈런의 세리머니를 하기보다는 머리를 숙여 땅을 보며 뛴다고 한다. 왜냐하면 볼을 던진 투수의 마음을 생각해서이다.

호수돈 여학교를 설립한 선교사 엘라수는 '김치 없이 밥을 먹는 한국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다. 밥상에는 물론이고, 국수를 먹어도, 떡을 먹어도, 심지어 짜장면이나 양식을 먹어도 우리는 김치 생각이 난다. 생활환경이 변화하면서 김치가 딤채로 들어가 버렸지만, 예전 추운 겨울 땅속에 묻어 둔 김칫독 속에서 발효되는 김치의 맛을 우리 한국인들은 잊기 어렵다. 어떤 음식과도 어울리는 독특한 맛이다. 땅에 묻어 해를 넘기며 익은 묵은지의 맛은 한국인만이 얻을 수 있는 깊은 맛이다. 무, 배추에 맛이 다른 양념들이 어우러져 김치의 그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김치는 '세상의 이치를 받아 자기 것으로 버무려서 익혀보세요'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그렇게 노력하면 김치가 어떤 음식과도 어울리는 것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된장국이나 된장찌개는 밥과 짝을 이루어 우리에게 친근한 음식이다. 된장을 만들려면 가을에서 동지 사이에 대두콩을 무르게 쪄서 절구에 찧어낸다. 덩어리 메주로 빚어서 잘 띄우고, 다음 해에 소금물에서 발효시켜 된장과 간장을 만든다. 장은 모든 맛의 으뜸이라고 한다. 장맛이 좋아야 맛난 음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말간 소금물에 들어간 메주가 고운 갈색의 장이 되기까지 천천히 발효가 진행되는 slow food이다. 또한, 간장은 몇십 년을 두고도 먹을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깊어지고 그 가치를 더해간다. 그래서 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맛난 맛을 간장에 나누어 주고 남은 메주가 된장이 되듯이 된장은 '기다릴 줄 알고, 나누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넌지시 얘기하고 있다.

정문 앞 우체통에 먹다 남은 핫도그를 꽂아놓은 걸 본 적이 있다. 셔틀버스 좌석 뒤 포켓에도 마찬가지로 먹고 남은 포장지, 짜장면 그릇을 아무렇게나 밀어 놓은 모습, 엘리베이터에 어른이든 누구든 아랑곳없이 먼저 타고 먼저 내리는 모습, 유치원 옆이나 정문 앞 건너편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 책상 위에 버려진 음료수병과 커피컵 등 이런 모습은 인성의 밥상에서 내려놓도록 하자.

밥처럼 뭉쳐서 서로 배려하고, 김치처럼 자신을 익혀내고, 장처럼 기다림의 미덕을 지닌 사람으로 행원동산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인성 밥상을 차근히 차려 나가기 바란다. 밥, 김치, 된장찌개 옆자리에는 찬을 더 올려 보자. 불고기와 무생채, 전이나 나물도 올려보고 밥상 한켠에는 살짝 치킨을 올려놓아도 괜찮겠다. 인성에 자기만의 실력, 재능을 더한 상을 차려보기 바란다.



스무 살의 나에게

글. 치위생과 황윤숙 교수

지난가을 '학과 개설 40주년 기념 학술제'에 초대받아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가 가족이 같은 전공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찾아 경험을 듣는 시간이 있었다. 사촌이나 자매 등과 함께 모녀도 있었다. 한때 제자였던 엄마와 엄마의 처녀 시절 모습을 추측할 수 있게 닮은 모녀가 소개되었다. 16학번 딸은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1985년도에 엄마도 이 창가에서 햇살을 느끼며 공부를 했겠구나 생각해요. 그리고 교정을 거닐 때는 엄마도 이 길을 걸으면서 젊은 날의 사색을 했겠구나 생각하니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라는 짧지만, 의미 있는 말을 했고 선배인 엄마는 마음이 담긴 딸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16학번 후배의 이야기 때문이었을까? 기념 강연을 마치고 오랜만에 교정을 걸어 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나무로 재질이 바뀌긴 했지만 돌 벤치가 있었던 언덕 자리에 앉아 20살의 그때를 회상해 보았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무 살의 정거장을 지나간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온 시간 속에서 유독 그때를 회상하며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왜일까? '아마도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이라는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일 것 같다. 그만큼 스무 살은 여러 길에 도전할 수 있었던 선택과 가능성이 있었던 갈림길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 20살로 돌아 갈 수 있다면 아니 20살의 누군가 나에게 길을 묻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아이였을까?
대학을 입학하고 새로운 전공을 접하면서 방황은 시작되었던것 같다.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떨지..... 그때 친구들과 찾았던 곳이 언덕의 이 벤치였다. 방황의 1학년 초, 선배의 권유로 시흥의 판자촌에서 치과의료 봉사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20명이 하나의 칫솔로 이를 닦는다는 보육원의 현실을 접하면서 고민은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좀 더 뭔가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치통 치료를 위한 작은 역할이지만 전문가가 되면 그때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20살의 나는 꿈을 세웠다. 40살이 되어도 일을 멈추지 않은 전문직 여성이 되어야지.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때는 40살이 직장여성으로서 엄청 경

력이 많은 그리고 현장에 오래 있는 나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과계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지..... 하는 정말 당돌하고 엄청난 꿈을 가졌다. 지금 현실에서는 도달 가능성이 아주 작았던 커다란 목표에 도달할지 어떨지 모르는 이 길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것에 대한 도전과 감사였다. 도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무엇을 할 때 '부족하지만 저도 배우면서 같이 해 보면 안될까요?' 라는 수줍은 시도였고, 방학 때 봉사 활동의 기회가 있거나 교수님들의 연구 활동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항상 감사했다. 젊은 날의 생각을 정리해서 나이 든 내가 대변해 보자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꿈이라기보다는 목표의 방향성을 세우는 것이다.

교복을 막 벗고 성인으로서 자유로움을 이제 얻은 젊은이들에게 먼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경험의 결과들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은 어렵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목표라는 것은 삶의 좌표이고 지향점인 나침판이다. 그러기에 상세하고 구체적이기보다 방향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라고 권하고 싶다. 목표가 왜 필요한지 예를 들어보자. 만약 누군가 '내일 설악산에서 만나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등산하기 편안한 신발과 등산복을 입고 비가 올 것인지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집을 나설 것이다. 또한 '해운대 백사장에서 모래 놀이해요.'한다면 모자와 선글라스 그리고 샌들을 준비할 것이다. 목표는 가야 할 길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한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게 한다.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목적지에 가는 길에 알맞은 준비를 하고 그 길에서 만나는 많은 것 중에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나치지 않고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경험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경험은 책으로 배울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직접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이 모이면 나만의 것이 된다. 유태인의 경우는 만 13세가 되면 성년식(initiation ceremony)을 치른다. 그때 하객들은 축하금을 부모에게 전달한다. 보통 200~300여 명의 하객들의 축하금을 그대로 저축해 두었다가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출발할 때 그동안 보관해왔던 통장을 자녀에게 건넨다. 그리고 이 돈은 자신이 마음대로 운용하도록 한다고 한다. 여행을 갈 수도, 재테크를 할 수도 있고 또 작은 창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돈을 경험의 돈이라고 하기도 한다. 경험은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경험은 큰 사건을 경험하거나 멀리 여행을 가거나 프로젝트에 참가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일들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 가는 것이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경험들이 채워져 넘치는 것이다.

16학번 후배의 진솔한 이야기가 오늘 교정 언덕에서 20살의 나를 만나게 해 주었다. 가만히 지금의 나를 돌아본다. 젊은 날 두 가지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 환갑을 앞둔 나이에도 아직 일하는 전문직 여성이고, 또 하나는 치과계 전문학회 대표 직함을 가지고 국가 구강 보건정책에 관여하고 있으니 꿈을 이룬 것 같다.

지금도 그때처럼 가을 햇살은 참 눈부시고, 바람도 부드럽다. 다만 검은 머리는 회색으로 변하고 등은 구부정하지만 젊은 날 내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꿈을 가져 길을 잃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그길로 가기 위해 작은 실천을 통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 준 것에 대해서.....



행원문화상

114
사진 부문 심사평과 수상작

120
시 부문 심사평과 수상작

122
에세이 부문 심사평과 수상작

사진 부문 심사평

글. 영상디자인과 이후종 교수

사진 부문 대상. 도전 _ 통상중국어과 16학번 윤민경

제일 앞선 갈매기가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유람선 등에서 사람들이 배 위로 올라가면 갈매기들이 모여들고 공중을 향해 과자 등을 던져주면 갈매기들 중 가장 먼저 날아온 놈이 공중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날렵하게 받아먹는다. 또한 사람들은 가끔 그냥 던져주는 척하는 장난도 해가며 갈매기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에 더 즐거워한다. 정작 갈매기들은 사람이 공중에 던져준 먹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을 하며 달려들어 취하려 한다. 이는 대개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도전(挑戰)'이란 말의 어원은 원래 '목숨을 걸고 싸움을 건다'라는 뜻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도전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 10여 년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비결은 방송기획자가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인기연예인들에게 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던져주어 실패와 성공을 보며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무한도전'에서 보이는 도전의 모습이 갈매기들의 좌충우돌 생존투쟁하는 모습과 오버랩되며 우리들의 악다구니같은 현실과 만나 '도전'이 주는 숭고함 이면에 비장함마저 느끼게 된다.
도전은 우리를 진보하게 한다. 비단 갈매기들의 모습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도전을 해야만 하는 일상의 지친 우리 속의 한 모습이 투영되어 보여진다.

사진 부문 가작. fly boy _
유아교육과 16학번 임다슬

비상하는 소년, 아름답다.
초록이 짙은 배경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힘껏 뛰어오르는 소년. 소년이 힘차게 농구공을 바스켓에 넣으려는 도약의 순간이다. 격려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싶다. 누구나 소년•소녀시대를 돌아보자. 도전의 연속기다. 왠지 '소년•소녀'라는 말과 관련된 단어를 떠올려 보자면 여름, 바람, 꿈, 반복, 용솟음, 땀, 순수, 추억 등이 생각난다. 한편 요즘 각종 매체에서 화제가 되는 '무서운 소년•소녀'들의 모습이 떠올려지기도 한다. 도전의 아이콘(icon)이었던 우리 '소년, 소녀'가 달라지고 있다. 폭력의 피해자에서 점점 가해자로 변하여 급기야 소년법 폐지 청원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한다. 소년을 보호하자는 법을 폐지하면 더 이상 보호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인가.
좀 더 깊이 성찰해보자. 어른들이 끝없이 만들어 내고 있는 가정, 사회, 국가의 폭력의 폭주가 결국 소년들도 보호할 수 없는 최악의 지경으로 치닫고 있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각종 미디어에서 난무하는 상상 초월의 성인폭력이 순수한 도전의 이미지를 지닌 우리 소년들을 괴물로 추락시키는 원죄가 아닐런지... 소년을 없애고 성인만 존재하는 사회로 만들자는 것인지 되묻고 싶지 않을 수 없다.
제발 돌려주오. 우리 소년들 본연의 모습을...

사진 부문 가작. 위로 향해 _
컴퓨터정보과 15학번 김현아

그 유명한 파리의 에펠탑이다.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파리 만국박람회(EXPO)' 때 세워진 높이 약 320m의 격자형 철탑이다. 탑의 이름은 이 탑을 세운 프랑스 건축가인 귀스타브 에펠 Alexandre Gustave Eiffel(1832~1923)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건설 초기 에펠은 미학적, 건축적 측면에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공사비 또한 스스로 조달해 가며 완성시켰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며 꿈을 실현시키려는 모험이었다. 일단 철을 재료로 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것은 일상의 전환점이다. 또한 당시로서는 인간이 극복하기 힘든 중력에 대한 최대한의 저항이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높은 시도의 극점이다. 에펠은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이후에도 자유의 여신상의 철골구조물, 수에즈운하 등 거대한 공공건축 구조물들을 제작하였다.
한 인간의 도전정신이 탑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과거에도 현재에도 인류문화상징물의 최고의 하나로 추앙받고 있다. 이 이미지는 푸른 하늘의 배경 하에 드러난 모습이다. 야경의 모습 또한 아름답다고 한다. 직접 가서 보고 오르고 싶다. 탑을 오르는 방법이 승강기와 계단이라고 하는데 파리를 간다면 직접 계단으로 오르는 '도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지...



사진 부문 대상. 도전

통상중국어과 16학번 윤민경



사진 부문 가작. fly boy

유아교육과 16학번 임다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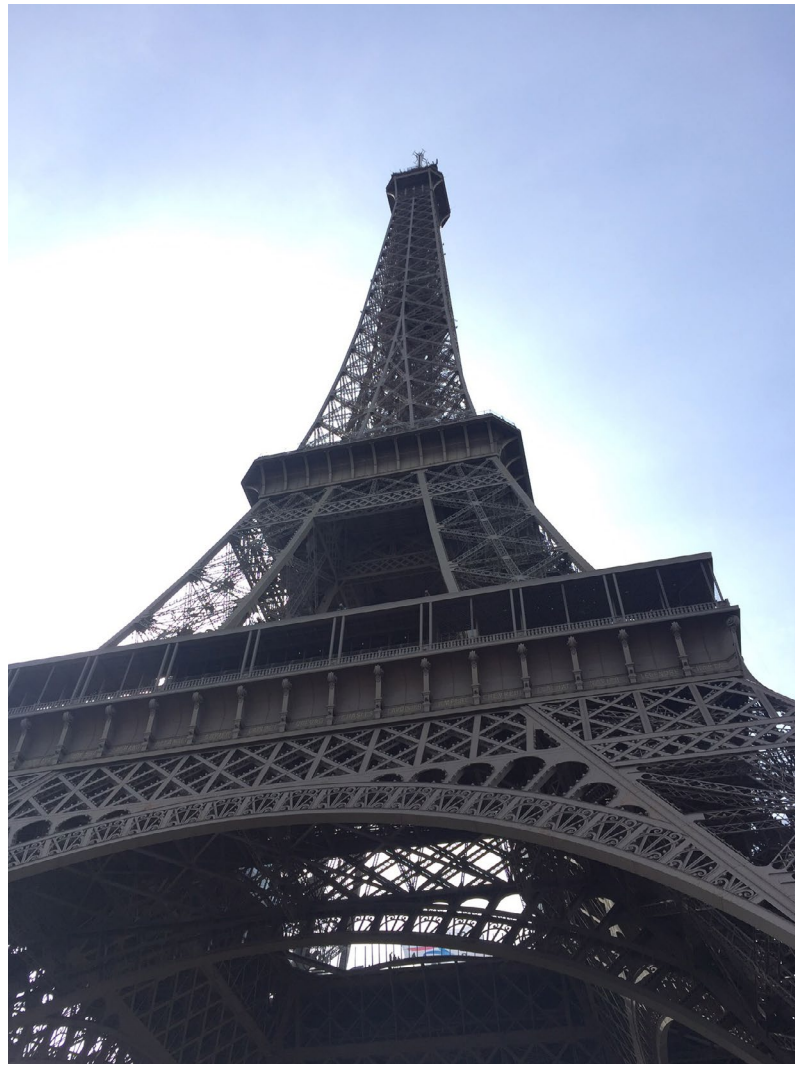


사진 부문 가작. 위로 향해

컴퓨터정보과 15학번 김현아

시 부문 심사평

글. 문예창작과 장석남 교수

제출된 시들의 대부분은 사적 이야기에 머물거나 무질서한 문장이었다.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의 특성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신재원의 <사자에게 시집을 던져주었다>를 당선작으로 선한 이유는 그나마 이 시가 시의 본질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조팝나무꽃을 시집으로 치환한 발상도 괜찮았다. 조팝나무라고 하는 섭리의 대상과 시집이라고 하는 인위적 사물 사이에서의 의미의 발생이 예사롭지 않았다. 사자, 물론 동물원의 사자다. 갇힌 존재라는 상징성에 잇대어진 삼각형의 이미지 사이의 긴장감이 새로웠다. 다만 그 전개 과정이 너무 거칠고 서툰 점이 흠이었다. 그럼에도 격려의 성격을 담아 당선작으로 민다.
정진하기 바란다.

사자에게 시집을 던져주었다

시 부문 당선작. 문예창작과 16학번 신재원

조팝나무 밑에서 말했다
꿈도 꿔본 놈이
꾸는 거라고
층층이 매달린
꽃무더기를 잡아 뜯는다
너는 됐고
입이나 맞춰보라고 종용했다
치이고 치여도
속앓이 한번
안 해본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몽이 중요하다
강가에서
손 안 가득 있는
꽃송이들을 흘뿌린다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활자가 날 쳐다보고 있었다
생각보다 깊은
생각을 한다
사자에게 시집을
던져주었다
안전한 우리 바깥에서는
될 일도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안에서
다른 종자를 품으며
꿈을 꿔본다
다시

에세이 부문 심사평

글. 문예창작과 안보윤 교수

김예진의 <고백>은 외모로 타인을 평가하고 평가받는 게 당연시되는 현대사회의 면모를 밝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다소 익숙한 도입부였으나 간간이 뛰어드는 문장들, 그러니까 '알바 구인란에서 여성은 바지 착용 금지와 5cm 이상 힐 착용 필수, 거기에 립스틱과 스타킹 색까지 정해져 있지만 남성은 깔끔한 면도와 옷차림에서 끝나는 것을 읽을 때', '남자는 예쁘면 다 좋아한다는 유쾌함을 가장한 수직적인 농담들을 들을 때. 작고 사소하게 차별적으로 배치된 것들을 우리는 흡수한다'라는 식의 자기만의 표현이 좋았다. 이중잣대와 편견, 때론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여성스러움의 강요가 우리 삶 속에 은밀하고 집요하게 포석을 깔아 현재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김예진은 자신의 중학교 시절 고민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질문한다. 왜 자신은, 그리고 여성들은 '예쁜 걸 좋아한다는 말로 빼앗긴 것에 대해 분노하기보다 예쁘지 않은 나를 혐오'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일관된 어조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것이 이 글의 아쉬운 점이 되었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고찰하고 자신만의 감각으로 글을 써나갔다기보다 외부로 발설되는 목소리에 유독 신경을 쓴 느낌이었다. 경직된 주장보다 진정성 있는 문장들이 보다 더 많은 독자에게 진정한 의미의 '질문'과 여운을 전달해 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승주의 <우리 모두의 기억> 역시 아쉬움이 남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에 의해 기울어진 일상과 훼손된 정서를 경험했고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 무겁고 힘든 주제이니만큼 그것을 직시하고 나름의 문장을 일궈나가려 했다는 점에서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 그러나 세월호에 대한 보편적 정서를 기반으로 한 접근법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주제나 소재보다 작가의 사유가 우선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이유로 작품에 대한 경탄보다는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 김예진의 <고백>을 대상작으로, 한승주 <우리 모두의 기억>을 가작으로 선정했다.

고백

에세이 부문 대상. 컴퓨터정보과 17학번 김예진

나는 하루 일정 시간 동안 수많은 인파 사이에 엉켜 있다. 지하철은 몇 번이고 사람들을 토해내고 삼킨다. 빽빽한 피로함을 비집어 자리를 잡고 지하철 손잡이를 잡으면 동의하지 않은 시야에 불쾌한 성형 광고가 들어온다.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여성에게 요구하는 예쁜 얼굴과 과도하게 마른 모델이 이전의 자기 모습을 비하하는 문구와 함께 광고판 안에 박혀있다. 그것에서 시선을 피해도 잔상이 남는다. 목적지에 도착해 지하철에 올라탈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 휩쓸려 내린다. 사람들은 환승을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인다. 나 역시 그들의 틈새에 끼어 몸을 움직이며 동시에 눈동자를 굴린다. 사람의 무의식은 행동에 얼마나 큰 범위를 차지할까. 나는 고백한다. 조금 전까지 성형 광고를 보고 화가 났던 나 역시 다른 여자들에게 시선이 닿을 때마다 '평가'하고 있었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끝없이 영향을 받는다. 이목구비는 우리가 원할 때 열고 닫히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언제부터일까. 광고에서, 티비에서, 노래 가사나 인터넷 글 혹은 댓글에서 여성이 상품화되고 외적인 잣대로만 평가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습득하게 된 것은.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얼굴을, 몸매를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비좁은 틀 안에 꾸역꾸역 맞춰 들어가기 위해 화학 약품을 얼굴에 바르거나 밥을 굶게 된 것은. 지하철 거대한 스크린에 있는 부은 다리가 예쁘게 돌아오는 의약품 광고와 순결함과 아름다운 청결을 강조하는 생리대 광고 사이에서 지하철을 기다릴 때. 광고에서 사진과 다르게 실물이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이 제재 없이 나올 때. 알바 구인란에서 여성은 바지 착용 금지와 5cm 이상 힐 착용 필수, 거기에 립스틱과 스타킹 색까지 정해져 있지만 남성은 깔끔한 면도와 옷차림에서 끝나는 것을 읽을 때. 야자에 찌든 학생들을 보고 너희들은 여자가 아니라는 선생님의 말을 들을 때. 여자 개그맨의 외모와 살을 후려치는 예능이나 개그 프로그램을 볼 때. 매일 저녁에 시청하는 9시 뉴스가 중년 남자와 젊고 예쁜 여자가 데스크에 앉아있

는 것으로 시작할 때. 여자는 예쁜 게 제일 좋은 거다. 남자는 예쁘면 다 좋아한다는 유쾌함을 가장한 수직적인 농담들을 들을 때. 작고 사소하게 차별적으로 배치된 것들을 우리는 흡수한다.

특히 아이들은 스스로 보고 들은 아주 작은 세계만을 믿는다. 무지의 상태에서 습득하는 최초의 것이 그들의 전부이고, 그것에서 파생된 것들로 삶에 닥치는 선택들을 결정한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접하는 첫 미디어 속 아동 애니메이션의 여성 캐릭터는 예쁘게만 존재하는 수동적인 캐릭터가 대다수다. 아이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캐릭터는 남성 캐릭터가 압도적으로 많다. 여성 캐릭터는 어린 나이가 타겟임에도 불구하고 속눈썹이 길고, 때론 볼 터치를 하거나 입술을 붉게 바른다. 일상에서 접하는 여성과 남성을 뜻하는 아이콘도 마찬가지다. 남성은 디폴트로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여성은 남성의 모양에서 리본을 매거나 치마를 입는다. 여성도 꾸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마트 장난감 코너에서 여아 장난감으로 분류된 카테고리 속에는 일관된 바비 인형의 곡선이 존재하고 화려한 화장 놀이 세트가 존재한다. 여성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억압시키는 방법을 습득한다. 기억나지 않는 어린 나의 시야 속에는 여성에게로 향하는 외모적인 잣대가 가감 없이 맹렬하게 나를 통과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중학생 때 썼던 일기를 보면 예뻐지고 싶어서 죽고 싶다는 말이 잔뜩 쓰여 있다. 나는 내 외모를 스스로 비하하는 말을 농담으로 자주 이용했다. 친구들 앞에서 평소에 거울 속의 나를 우울에 빠지게 만드는, 나의 것들을 조롱하면서, 그게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외모가 권력이라는 말은 남에게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외모에 휘둘리게 만드는 무해한 음모다. 외모는 바뀔 수 없다. 바뀔 수 없는 것에 대해 이루어지는 사회의 자극적인 평가 속에서 여성들이 배우는 것은 자기 혐오다. 왜 나는 내 외모 때문에 죽고 싶은 날들을 보내야 했을까. 무감각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나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 일순위를 외모로 두게 했다. 나는 상대방의 눈을 잘 쳐다보지 못했다. 못생긴 내가 싫어서 상대방도 당연히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다. 자존감이 낮았다.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열등감을 느꼈다. 고등학생 때의 나는 진지하게 자궁 적출을 고민했다. 나는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가 짧았고, 나에게 편한 체육복만 입었다. 나는 내가 원래 남자인데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사회에서 말하는 여자는 그러면 안 됐으니까. 내가 여자인 게 싫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나는 여자라서 편안한 것을 빼앗긴 거였다. 사회에서 여성을 사람이 아닌 '여성'이라는 상품의 카테고리에 넣는 바람에 나는 스스로를 부정하고 깎아내리고 남에게 맞추려고 했던 것이다. 보다 잘 팔리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고 어느 대학에서 분내 나는 여자보다 남자를 더 많이 뽑으라는 말이 화제가 됐었다. 돈 들여 자신을 치장하는 여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꾸미지 않는 여성은 예의가 없다고 표현하는 사회가 어처구니없다는 것을 그제야 느꼈다.

내가 화장을 하지 않고 체육복을 입고 다녔을 때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나를 남자라고 불렀다. 화장은 대부분 여자만 한다. 왜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나는 뒤늦게야 그런 의문이 들었다. 사람들이 예쁜 것을 선호하고, 예쁜 것이 권력이 될 수 있다면, 왜 남자들은 꾸미지 않고도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외모에 대한 잣대가 심할수록 여성의 욕망 역시 삭제된다.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는 쟁취에 있어 달성해야 하는 카테고리가 한 가지 더 생긴다. 그것도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외모'라는 카테고리다.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뉴스 속 아나운서 얘기를 다시 예로 들겠다. 중년의 뿔테 안경을 쓴 남자 아나운서를 보고 남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아나운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반면 젊고 예쁘게 꾸민 여자 아나운서를 보며 여자들은 '아나운서는 예뻐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이를 먹는다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사회에서 요구하는 미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조용히 사라지는구나'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다.

중년 여자 아나운서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까마득하게 차이 나는 장벽은 좌절을 먼저 배우게 한다.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아주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유머 아닌 유머가 있다. 남자들이 소개팅하고 온 다른 남자에게 오로지 '예쁘냐?'하고 묻는 것이다. 이렇듯 남성들의 여성을 향한 품평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고, 여성들이 이를 유머로 소비할 정도로 모두가 관대하다. 하지만 방송에서 키가 작으면 루저라는 발언을 한 여성은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을 얻어먹고 아직도 곳곳에서 무개념 김치녀로 불리고 있으며 사회에서 매장당했다. 이 같은 이중잣대가 너무 만연한 나머지 남성들이 여성들의 외모를 중요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성들은 감히 그럴 수 없다는 모순적인 생각이 심지어 여성들에게도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아주 작고 지적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은 굉장히 깊은 혐오와 뿌리 깊은 악습으로 이어져 있다.

여성들은 빼앗기고 있다. 인형이지 않을 권리. 대상화되지 않을 권리. 화장하지 않을 권리. 외모로 후려치지 않을 권리. 편안한 삶을 추구할 권리. 사회는 간사하게 너의 것을 빼앗는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예쁜 걸 좋아한다는 말로 빼앗긴 것에 대해 분노하기보다 예쁘지 않은 나를 혐오하게 만든다. 화장을 하면 보기 좋아진다. 누가 보기 좋아하는 것인가? 여성은 누군가에게 보기 좋은 것이 되어야 하는가? 여성은 진열된 상품이 아니다. 스스로를 평가당하는 위치로 끌어내리는 순간 여성의 열망은 외모라는 고인 물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나를 덜어낸 만큼 남에게 평가받는다. 자신을 감추는 분장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권력은 없다. 여성은 스스로를 타자화시키는데 능숙해지게 자라난다. 어린 시절 또래 남자아이가 괴롭히고 아이스께끼를 했을 때 돌아오는 말은 '그 남자애가 너를 좋아해서 그래'라는 남자아이의 입장에 이입한 말이었다. 나의 몸은 남자애가 내키면 언제든지 괴롭혀도 되는, 타인의 것이 되어버린 거다. 끝없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시선과 품평을 군말 없이 듣는 존재가 되는 것에 무뎌져 버린 것이다. 폭력적인 이 사회 속에서 자라온 여성은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 나 역시 끈질기게 달라붙는 나와 함께 자라난 시선을 완벽히 제거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지하고 있다. 무엇이 내게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아직은 폐쇄적인 사회고, 사회생활을 하며 사회에 섞여야 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셀 수 없는 개인의 사정과 가치관이 존재할 것이다. 무작정 화장이나 꾸밈을 비판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나 역시 겪어왔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자아를 갉아먹는지 알고 있다. 나의 무보수 꾸밈 노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나는 지난 몇 년간 몸소 깨달았다. 자학하지 않게 되는 것, 내가 겪고 있는 평가나 내면에서 속삭이는 외모에 대한 비하의 말들은 모두 철저히 사회화된 차별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난 후에 나는 비로소 자학을 멈추게 되었다. 나는 누군가의 고백을 보고 위의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고백은 부당함을 가시화시킨다. 가시화된 고백은 비슷한 감정을 겪었던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불러일으킨다. 용기 있는 고백은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나는 이런 인지와 고백이 늘어나길 바란다

우리 모두의 기억

에세이 부문 가작. 실무영어과 16학번 한승주

가족이란 참 따뜻한 것이다. 항상 내 곁에 있어주고 나와 함께 웃어주는 가족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만큼 그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들과의 예고 없는 이별은 아마 평생의 그리움, 지워지지 않는 멍에로 그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이다.

2014년 4월 15일 화요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세월호는 승객 447명과 승무원 29명, 총 476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했다. 그 중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5명도 함께 탑승했다. 이날 세월호는 오후 6시 30분경에 출발 예정이었지만 인천항의 기상악화로 출항이 지연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출항 조건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출항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 4월 16일 오전 8시 52분경, 세월호는 항로 변경 중 좌현으로 배가 기울어졌고, 11시 18분에 선수의 일부만 남기고 바다 밑으로 침몰되었다.

이 끔찍한 사고로 내 친구들은 무려 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바다 속에 갇혀 있었다.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기도 전에 차가운 물속에 속절없이 갇혀버린 나의 앳된 친구들이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싶고 그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보고 싶은 사람은 과연 나뿐이었을까. 소중한 가족과 동료를 잃은 유가족들은 직접 바다 속에 들어가 그들의 사랑스런 아이들을, 애틋했던 동료들을 두 손으로 보듬어 주고 감싸 안아주고 싶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죽음에게 빼앗기고, 죽음으로 인해 그들과 이별한다는 것은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기도 싫은 사실이다. 더 이상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없다는 사실, 그 사람과 함께 이루고자 약속했던 일들을 이제는 혼자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감히 헤아린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 잔상에 맺히는 것은 결국 조금이라도 그들을 더 사랑해주고 싶고, 그들에게서 더 사랑받고 싶은 그리움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더 울컥하게 만든다. 분노에서 절망을 거쳐 그리움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아파했는가.

중국에는 '단장지애(斷腸之哀)'의 고사가 있다. 이는 새끼를 인간에게 빼앗긴 어미 원숭이의 슬픔이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같다고 하여 일컬어진 말이다. 원숭이도 새끼를 빼앗긴 슬픔에 창자가 끊어질 정도인데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더구나 자식들이 탄 배가 점점 기울어 가라앉는 장면을 매순간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던 부모들의 슬픔과 그 고통은 평생 가슴속 깊이 서려있을 것이다. 자식, 사랑하는 사람과의 죽음을 통한 이별 앞에 인간이 받는 충격은 단순히 신체적, 감정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인간은 매 순간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관계적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생물학적 단절을 넘어 마음과 영혼, 심지어 세계의 소멸을 야기하는 극심한 고통을 준다. 특히 자식의 죽음은 다른 어떤 고통이나 슬픔과도 비교될 수 없기에 '참척(慘慽)'이라는 고독한 단어로밖에 표현될 수 없다고 한다. 그야말로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극심한 파괴이자 극한의 징벌인 것이다.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어야 했던 소설가 박완서 씨는 자식의 죽음은 하나의 세계의 소멸이 아닌 두 개의 세계의 소멸을 뜻한다고 말했다. 담쟁이덩굴처럼 서로 뒤엉키고 줄기를 공유하며 자라나듯, 자식과 부모의 세계는 오묘하게 휘감겨 공존한다. 즉 부모의 삶의 이유이자 의미인 소중한 자식의 죽음은 단지 아이의 세계의 소멸이 아닌 그와 함께 미래와 희망을 나누었던 부모까지 총 두 사람의 세계의 소멸인 것이다. 설령 부모의 육신은 숨 쉬며 살아있다 해도 결코 온전치 못하다. 그들의 삶은 처참히 파괴되었고 아이가 없는 불투명한 미래는 늘 불완전할 뿐이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가진 그들과 아무것도 함께 공유해줄 수 없는 나의 모습 또한 처량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기울어진 배 안에서 마지막까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을 친구들을 생각하면 헤아릴 수 없는 미안함과 아픔이 느껴진다. 그런 알 수 없는 죄책감으

로 울컥할 때마다 가끔은 목 놓아 울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한참을 울어보아도 그 분노와 안타까움은 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배는 침몰했지만 승객들은 전원구조라는 뉴스보도를 우리 모두가 믿었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항구에 도착해서야 진실을 알았다. 뉴스보도가 틀렸다는 것을. 하지만 또 버릇처럼 순종하듯이 해경의 말을 믿고 차례대로 아이들을 구조하고 있다는 소리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바보 같은 소리를 믿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문가가 나서서 말했다. 선내에 에어포켓이 있어 아직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왜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을까. 왜 눈 뜬 장님처럼 그저 경찰과 전문가, 국가의 설명과 안내에 따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을까. 나는 왜 맨몸으로라도 친구들을 구하러 바다에 뛰어들지 못했을까.

가끔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 그때마다 어쩌면 이 모든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맹목적인 믿음, 순종, 어리석음이 우리의 친구들을, 가족들을, 동료들을 저 바다 속으로 가라앉도록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그날 우리 모든 국민은 죄인이 된 것이다. 굳이 어떤 설명이나 증거를 대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 은연중에 알고 있을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 사고가 있을 때까지 그 아이들의 죽음에 크든 작든 조금씩 기여를 해왔다는 점. 이제는 정말 깨달아야 한다. 이제는 정말 눈을 뜨고 우리의 크고 작은 실수들, 잘못들을 되짚어보아야 할 때이다. 대형사고와 재난이 시시때때로 일어나 소중한 생명들을 무수히 앗아갔어도,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이 터무니없고 의심스러웠어도, 정치인들이 자기 이윤 챙기기에 바빠 한 눈 팔고 있을 때에도, 재벌 기업과 사회 지도층이 탐욕에 눈이 멀어 각종 비리 속에서 또 다른 재난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어도, 우리는 그저 우리 먹고 살기에 바빴다. 즉, 지금까지 그저 방관하고만 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방관의 죗값이 쌓여 결국 우리를 오늘날 아이들의 목숨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죗값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노란 리본을 들고, 영정 앞에 하얀 국화를 놓고, 수많은 글들을 적어내고 책을 펴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렇다고 너무나 오래되고 고착화된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희생자들의 아빠들이 보여준 십자가 순례는 어쩌면 죄인의 모습을 한 대한민국 어른들이 시작해야 할 첫걸음이었는지 모른다. 그분들은 무고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죄인의 고통 속에서 6킬로그램의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들고 안산 단원고에서 팽목항까지 그리움과 속죄의 마음으로 걸었다. 그리고 팽목항에서 '아이들의 눈물'인 바닷물을 담아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가 열리는 대전까지 쉬지 않고 걸었다. 이러한 고난의 행군은 좀 더 나은 세상, 즉 비겁함과 탐욕이 아닌 사랑과 평화의 세상을 향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군은 단순한 죄의 고백과 회개가 아닌 미래에 대한 결심이자 각오였다. 단순히 권력의 군림에 순종하며 비겁하게 살지 않으며, 두려움 속에서도 옳음을 택하고, 약자의 편에서 나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앞으로 살아갈 생명을 위하겠다는 다짐이었다.

대장정을 마친 뒤 웅기아빠 김학일 씨가 남긴 말은 아직도 내 가슴에 울림이 되어 남아있다. "아직 우리가 울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이 끝날 때까지 울어야 합니다. 약속되지 않은 이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아직까지 웅기를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이 끝나면 다시 한 번 안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도록."

나도 아직 세월호 희생자 친구들을 안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나 또한 부끄럽고 눈물이 벅차올라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사고가 있은 후 지금까지도 종종 무력감과 분노, 허탈감과 싸운다. 가끔은 웃음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공허함이 밀려오기도 한다. 그 당시 무력했던 정부에 울컥해 다시 한 번 화를 내보기도 하면서 스스로를 달랜다. 내 마음 속에도 세월호가 잠겨있는 듯한 무거움과 죄책감, 언제쯤 덜어낼 수 있을까.

어떤 이는 세월호 얘기가 지겹다며,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유가족들을 모욕하곤 한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유가족인 아닌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세월호 참사는 잊힐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 배가 침몰했는지, '무엇이'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는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 또 세월호 유가족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당일로, 사고 전날로 돌아가 그날을 되뇌며 그리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절감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국민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잊지 않겠습니다. 4.16'을 다짐했다. 또 힘을 모아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다함께 애쓰자고 서로의 의지를 다졌다. 당시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들은 그 배의 침몰로 인해 우리 사회의 숨어있는 암세포 같은 문제점들이 양파껍질 벗기듯이 발견되는 것을 두 눈과 귀로 보고 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아파했다. 재벌에게 특혜와 규제 완화를 제공했던 지난 정권들은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대한민국의 숨어있던 주요 모순들이 한 번에 터뜨려진 사건. 이것이 우리가 세월호를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이유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잊지 않기 위해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삼켜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을 잊지 않는 길일 것이다.



편집 후기

134

2017년 교지편집위원회 소감

2017년 교지 편집위원회 소감



편집장 **김은진(문예창작과 16학번)**

'편집장' 매우 부담스럽고 제 생애 가장 무거움을 느낀 직책이어서 일을 하면서 매번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교지는 나왔어요! 이제 우린 자유예요. 일 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아쉬움이 가득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예전 교지를 보면서 울적해 하던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교지가 발간되었으니 아마 교지를 끌어안고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2년 동안 교지활동을 하였지만, 작년과 달리 모든 것들이 색다르게 바뀌어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작년 동안 배운 것은 새 발의 피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처음 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동안 교지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저의 하소연을 계속 들어준 전편집장님 정말 감사해요. 편집위원들 모두 수고했어요. 어설픈 편집장 잘 쫓아와 줘서 고마워요!



총무 **이유빈(문예창작과 16학번)**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어요. 대학 생활의 마지막 교지편집부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서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네요. 저희 편집위원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다들 수고하셨어요! 이번 교지가 나오기까지 글을 집필해주신 그리고 기사에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장 많이 고생한 저희 교지편집장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내년에도 그리고 5년 뒤에 아니 50년 뒤에도 한양여대를 대표하는 멋진 교지가 계속 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부장 **조미선(패션디자인과 15학번)**

교지편집위원회를 하면서 재밌는 추억과 경험을 많이 배우고 갑니다. 다만, 조금 더 글솜씨가 멋졌으면 하는 바람과 편집위원들에게 2학년 선배로서 많이 챙겨주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면서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같이 고생한 친구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싶고 지도해주신 중국어과 권수전 교수님에게도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윤상아(문예창작과 17학번)**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여러 가지 것을 경험하며 스스로가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20대의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춰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내 기사가 정보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좋은 정보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조아현(니트패션디자인과 17학번)**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교지편집부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배우고 갑니다.
처음 하다 보니 많이 부족하지만, 친구들이 있어 재미있게 한 것 같고 이 계기로 인해 대학 생활에 추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에게 감사합니다.



기자 **한민주(컴퓨터정보과 17학번)**

처음 교지편집부를 들어가고 두꺼운 교지를 몇 번이고 훑어보며 '내가 이 교지를 채울 수 있을까'라며 막막해했던 시간을 지나 교지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이름을 걸고 나오는 글이기에 더욱 신중했고 학교를 대표하는 교지이기에 더욱 진중했습니다. 게다가 대학교에 진학해 처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한 활동이기 때문에 의미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껍게만 느껴졌던 교지를 함께 채워간 부원들과 교수님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즐거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인	이보숙
발행처	한양여자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지도교수	권수전 (통상중국어과 교수)
편집장	김은진 (문예창작과)
편집위원	이유빈 (문예창작과) 조미선 (패션디자인과) 윤상아 (문예창작과) 조아현 (니트패션디자인과) 한민주 (컴퓨터정보과)

©2017. HAENGWON all rights reserverd.
©2017. designsagang for this edition.

Published Date	Nov. 2017
Limited Edition	50 copies
Design	www.designsagang.com



한양여자대학교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길 200(사근동)
www.hywoman.ac.kr
02.2290.2114